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4월 25일(음력 3월 9일) 수요일 (주간) 제 625 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우리의 業을 돌아보자

세상이 어두울수록 발심하고 수행하자

"우리사회가 병들었음을 정직하게 자각해야…남의 일 아니다"



조계사(주지 원담)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한 32인과 가해자 조승희씨의 넋을 추모하는 천도의식을 4월 20일 대웅전에서 봉행한 후 앞마당에 희생자 33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등을 달았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참담하다. 그의 말대로, "무슨 인생이 이 모양이지?"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의 심연에는 어떤 어두운 힘이 도사리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와 폭력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앳되고 여려 보이는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참혹하게 일그러질 수가 있을까?

방송국에 보냈다는 그의 비디오와 사진을 보고 있자니, 사회를 향해 도발해대는 그 젊은 얼굴은 이미 영혼의 상처로 시퍼렇게 멍들어서 차마 인간의 얼굴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아무리 친구가 없는 극단적인 외톨이였다지만, 적어도 부모와 누나는 있었지 않은가? 하지만 그 최소한의 가족적 유대마저 '이스마엘 액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미국이니 한국이니 가릴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한 것인가!

이번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엄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23살의 어느 한인 1.5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메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밀히 분노와 증오의 씨앗을 키우지 않은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 세계화로 통합된 지구촌에서 거대한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쫓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난 과학기술문명이 만들어낸 각박한 세상살이는 우리 사회를 스트레스의 용광로로 변화시킨 지 이미 오래이지 않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끔직한 공업(共業)의 수레바퀴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엄중한 경고다. 우리는 겸허하게 사회병리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전방 총기사건이나 연쇄살인사건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곪아터진 이런 통증을 또 외면한다면, 우리의 병은 만성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잘 생각해보면, 피눈물 나는 통증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통증이 없다면 몸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아픈 줄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밝혀놓은 바와 같이,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간직하고 있다. 사회라는 유기체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건은 집단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업(業)을 돌아보게 한다. 특별한 아픔을 주는 만큼, 각자 스스로 처한 처지를 더욱 자성하게 된다. "세상에! 애먼 중생들 손에 자유롭게 총을 쥐어주다니!" 처음엔 2억 자루가 넘는 총기가 돌아다니는 미국 사회에 한정해 혀를 찼으나, 이 땅을 돌아보니 오십보 백보다. 더군다나 휴전선 바로 너머 또 한 명의 중생 손엔 핵무기까지 들려있지 않은가!

우리의 원효나 육조혜능 대사처럼 티베트인들이 끔찍이 사랑하는 히말라야의 성자 밀라레파 이야기는 이번 참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하는지를 암시한다. 부호였던 아버지는 죽으면서 어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맡아 달라고 당숙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가로채고 밀라레파의 가족을 종처럼 부리며 학대했다. 모진 가난과 배신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 밀라레파의 어머니는 청년이 된 아들에게 흑마술을 배워 당숙에게 복수할 것을 명한다.

혹독한 수련 끝에 밀라레파는 결혼식을 거행하는 당숙의 집을 무너뜨려 일가친척 35명을 몰살시킨다. 도망친 그는 피 묻은 손을 한탄했으나, 이미 일은 저질러진 후였다. 그때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있을 자신, 즉 엄연한 인과응보의 법칙이었다. 처절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살아생전에 해탈을 이루는 즉신성취(卽身成就)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믿을만한 스승을 찾아 수행을 시작했지만, 모진 업장으로 인해 수행은 뒷걸음만 칠뿐이었다. 이때 그가 겪은 고생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고생은 결국 그를 티베트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자의 반열로 올려주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살인의 중죄가 그를 성불의 길로 이끈 강력한 동인이 된 것이다.

이번 총기사건은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정한 농부는 잡초가 무성한 곳을 보면 감수하는 법이다. 그만큼 기름진 땅임을 알기 때문이다. 피폐해진 현대인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강렬히 피안을 갈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엔 또 하나의 '외톨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무명에 덮여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뉴스 속 화면은 한 청년을 대중살인범으로 만든 무명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의 일이 아니다. 엄숙히 자신의 무지를 돌아볼 일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정한 발심을 해야 한다. 어두울수록 수행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하면, 옆에서도 따라하게 되어있다. 더디어 보이지만, 수행하는 사회야말로 집단병리를 치료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모든 게 마음씀씀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

I Love Buddha / 변화의 가능성 ①

용정운(www.zentoon.com)



"충격 · 슬픔…생명과 사랑의 가치 되새기자"

조계 · 태고 · 천태종,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 희생자 애도문 발표

조계 태고 천태종이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희생자를 애도하는 글을 4월 18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명의의 애도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부상자와 유가족, 그리고 심한 충격과 슬픔에 빠진 미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생명경시 풍조와 인간성 상실은 우리 모두에게 각성과 참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서와 나눔으로 서로를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지관 스님은 애도문을 미국 대사관 대사에게 서한으로 전달할 것과 뉴욕사암연합회에 희생자들에 대한 천도재 추진을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애도문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유가족과 미국국민들에게도 마음 깊이 애도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이어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원망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도 애도문에서 "이번 사건이 세계인들에게 생명의 존귀함과 살인과 테러 등 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월 20일 위로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는 4월 22일 대적광전에서 미국 버지니아대 총기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도재를 봉행했다.

김원우 · 남동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월호 스님 '믿음은 실천속에 핀다' 5월 2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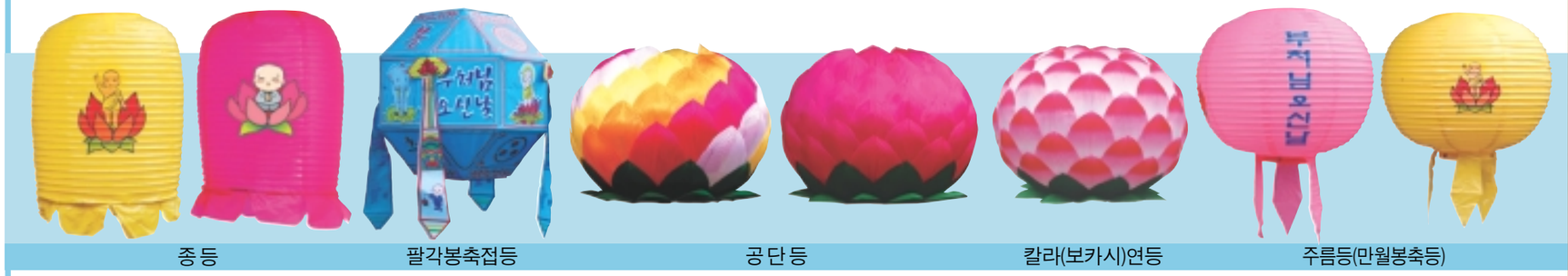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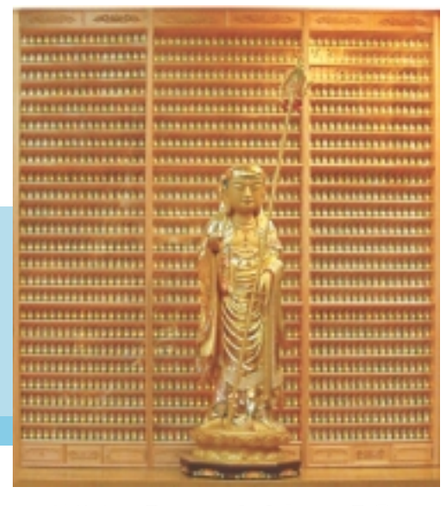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 단 등 | 칼라(보카시)연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독도에 佛心 심는다

태고종 5월 8일 독도서 국민화합기원법회 · 위령재 봉행

태고종이 독도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8일 오전 10시 역사상 최초로 독도에 직접 입도해 3시간 동안 독도지키기 국민화합기원법회 및 전몰군경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야베 총리 등 일본정부 관계자들의 역사와 진실 왜곡을 규탄하고, 독도를 지키다 순국한 영령들을 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고종이 3년 전부터 추진해온 이 행사는 일본과의 국가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불허로 인해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올해들어 문화관광부가 유례없이 허가를 했고, 문화재청도 적극 협조해줘 행사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1부 행사는 부원장 보경 스님의 상축,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의 봉행사,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법어, 정윤열 울릉군수와 편선재 울릉경찰서장의 기원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2부 행사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주관으로 전몰군경 합동위령영산대재가 열린다.

또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수비대에 금일봉과 위문품도 전달한다.

사회부장 운봉 스님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독도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는데 불교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도 "이번 법회를 독도에서 봉행함으로써 불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우리땅 독도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전 국민이 독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서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장애우 300명 "지관 스님께 5계 받아요"

조계사 5월 19일 수계법회 마련…장기자랑 등 공연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고타마 싯다르타(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이름)가 룸비니 동산의 보리수 아래에서 태어나 일곱 발걸음을 걸은 뒤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외친 첫 사자후.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는 뜻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해 장애우 300명에게 계를 내리는 법회를 봉행한다. 정신적 · 신체적으로는 불편할지라도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수계법회는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며 장애우 300명과 자원봉사자 300명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계사를 '자청'해 행사가 종단차원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수계법회 후 장애인 장기자랑 및 초청공연과 서원 등 달기도 진행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에서 대규모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 협력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지관 스님에 친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읽고 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친서를 보냈다.

두랏 바키세브 카자흐스탄 주한 대사는 4월 18일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2006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2차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쳐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으며, 대회에 참여한 조계종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또 "2009년 제3차 대회를 개최해 카자흐스탄의 여러 민족과 종교간 화해와 협력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각 종교가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세계평화도 이끌 수 있다"며 "3차 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두랏 바키세브 대사는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도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종교는 회교(수니파)가 53.4%를 차지하며 러시아 정교가 30%, 기타 유대교, 기독교, 불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남동우 기자

TIP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는 각국의 전통종교 지도자 및 세계저명 지도자를 초청해 종교간 화합과 평화정착을 주제로 열리는 대회. 다종교 · 다민족 사회인 카자흐스탄을 종교로 화합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지난 2차 대회에는 마하티르 前 말레이시아 수상 등 정상 3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에서는 사회부장 지원 스님을 단장으로 3명이 참석했다.

새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씨 내정



새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종민(58 · 사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4월 19일 내정됐다.

김종민 장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1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되면서 문화 및 체육부문과 인연을 맺었다. 1994년과 1995년 대통령 행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냈다. 1999년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장, 2001년 경기관광공사 설립준비위원장 등을 맡았다.

남동우 기자

"법정 다툼 막 내렸다"

범어사 관련소송 마무리

부산 범어사 주지임명과 관련해 현 주지 대성 스님과 前 주지후보자 홍선 스님과의 법정 다툼이 막을 내렸다.

범어사측은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 끌어온 오랜 법정 공방이 지난 4월 12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계종과 범어사 현 집행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정 다툼은 2003년 12월 20일 당시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 임기만료를 앞두고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3일 산중총회 소집공고를 냈지만, 문도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됐던 홍선 스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공고 명령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범어사는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대성 스님이 현 주지로 임명돼 집행부를 구성했다.

남동우 기자

흥천사 현지답사하기로

조계종 재정분과위 결의

서울 흥천사 토지 불법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공동으로 답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재정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현지를 답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재정분과위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재무부와 합동으로 부산 선암사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어린이 포교 '방향잡기'가 중요

조계종 포교원 26일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2006년 10월 조계종 최초로 어린이 · 청소년팀이 발족했다. 종단적으로 보면 올해가 실질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펼치는 원년이다. 하지만 어린이포교에 대한 목표나 비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 청소년팀과 포교연구실이 어린이포교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4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린이상을 정립하고 어린이의 일반적 특징과 그에 따른 포교방향을 정립한다.

연찬회는 '어린이 불자상 정립과 그 포교 방향성'을 주제로 이수경 교수(동국대 불교아동학과)가 '어린이의 일반적 특성과 그 불교적 이해'로 어린이 시기에 형성되는 신체적, 문화적, 정신적 소양의 특성과 그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다. 대효 스님(제주도 원명선원 원명유치원장)도 '어린이 불자상과 그 포교 방향'으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린이상을 정립하고 포교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 토론자로는 최미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이, 두 번째 발제 토론자로는 김형숙 경기교육청 장학사가 나선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29일 '명사법계전형' 등

조계종 제29차 원로회의(의장 종산)가 4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 종무보고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관음종, 28일 호국연무사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4월 28일 오후 2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이 직접 계사로 참여하며,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이 3사 7증으로 수계식을 봉행한다.

관음종은 훈련병들에게 수계증과 수계 단주를 지급해 훈련기간이나 군 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법회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우리 불교계에서 젊은이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관음종에서 훈련병을 상대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학인스님들 '실력 발휘'해 보세요

조계종 학인 논문 공모

조계종 교육원은 제3회 전국 승가대학(강원) 학인 논문공모전을 실시한다.

논문주제는 수행, 교육, 포교, 교과목과 관련한 자유주제로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사집) 이상의 학인이면 공모 가능하다. 팀 구성도 가능.

A4 20매 내외 및 요약문 2매(신명조체,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교육원으로 이메일(june@buddhism.or.kr)이나 우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국승가대학(강원) 학인 논문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논문은 창의성, 논리성, 충실성, 완성도 순으로 심사하며 입상자는 2007년 10월 31일 조계종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대상(1편)은 250만원, 금상(1편)은 150만원, 은상(2편)은 100만원, 동상(3편)은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논문 외 지원서, 승가대학 재학증명서, 승가대학 학장추천서도 제출해야 한다. (02)2011-1800~3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제 병풍도 고급 百福圖 명품으로 확 바꾸자!

가정에 하나쯤은 보배로 정통병풍이 있어야 名家집안 소리를 듣습니다.

福字 하나만 받아도 복스럽다는 행운의 복자 百福圖는 福福子를 中國 銀(은)나라 漢字 殷墟文字(언어문자) 원형 甲骨文(갑골문)체로 100개의 복자를 각기 다른 형체로 글자 하나 하나에 혼을 실어 금분으로 써서 열폭의 병풍에 담아 예술로 형상화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작입니다.



2007 丁亥年 돼지해에 삼불사 금강불교문화 연구원장 서예작가 廷潭스님께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富貴 번영과 幸福을 祈願하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들어서 50작품 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흑지 위에 금분으로 쓰여진 百福字는 보는 사람과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며 그 신비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廷潭스님 서예작가 약력

- 2002년 대한민국서화대전(예술의 전당) 최우수상(반야심경)
- 한중수교 12주년 중국산동성 박물관 전시 대상(금강경)
- 2003년 출발 백인전 반야심경, 금강경, 한시, 백복도 전 출품 북경공예미술대학 초대 한중서화 교류전 대상
- 2002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 주립대학 초청서예전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아트 갤러리 대상

특히, 첫 작품은 으뜸의 소장가치를 지니는 바, 첫번째 주문하시는 분께는 행운의 증1호로 바로 보급됩니다.

집안에 백복도 병풍을 소장해 두신다면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千壽(천수)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丁亥年 돼지해에 소중한 분들께 행운의 백복도 병풍으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안겨 드리세요.

부귀, 행복, 희망, 기쁨, 장수 5배의 소장가치가 있습니다.

특별 보급가 : ~~3,900,000원~~ → 1,900,000원

10폭 병풍 (폭 넓이 : 44cm, 한폭세로 높이 : 5자 2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2004-8215

입금계좌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 : (주)에이치비엠씨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전국 봉축행사 다양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를 주제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번 봉축행사는 △어린이 · 청소년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봉축행사 △전통 등 문화를 발전시키는 봉축행사를 방향으로 잡았다.

봉축행사는 5월 9일 오후 7시 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통등전시회(18일, 서울 봉은사), 연등놀이(19일 오후 7시, 인사동 및 조계사 앞길), 외국인 등 경연대회(20일 오후 2시, 조계사 앞길), 불교문화마당(낮 12시, 조계사 앞길), 어울림마당(오후 4시 30분, 동대문야구장), 제등행렬(오후 7시, 동대문~조계사), 연등음악회 및 대동한마당(오후 9시 30분, 종각사거리) 등으로 이어진다. 시청 앞 점등식에서는 서울시 발전과 평화기원을 담은 대형 장엄등에 불이 밝힌다. 봉축법요식은 2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각 사암에서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 경축 기념행사

행사명	기간	장소	연락처
제10회 전국 청소년 사경 디자인 공모전	3월 12일~5월 31일	전국	(02)723-6165
제37회 전국웅변대회	5월 13일	광명사	(02)735-1896
제19회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4월 29일,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02)738-7860
평화와 민족번영을 위한 국민화합기원대법회	4월 30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02)732-4885
봉축기념 '찬불가 콘서트'	5월 3일~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02)723-9836
불교문화체험 한마당	5월 5일	인사동	(02)732-0239
제13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	5월 5일	조계사	(031)885-9952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월 11일 오후 7시	KBS홀	(02)718-4599
제4회 경주 남산길 마라톤대회	5월 13일 오전 9시	경주 남산 통일전	(054)458-0755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 및 사진 전시회	5월 14일~6월 16일	싸이언드림갤러리, 도선사, 봉은사, 대구	(02)425-2655
시노래 나팔꽃의 산사음악회 '소를 찾아서'	5월 1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011)436-6766
제12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5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02)2267-6833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	5월 20일	조계사 앞길 문화마당 무대	(02)732-6165
제20회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	5월 27일	동국대 중강당	(02)733-5138
학술세미나 '한 · 중 · 일 삼국의 근대화 불교'	5월 31일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다향관	(02)2260-8507

▮ 자비의 손길

행사명	기간	장소	연락처
자비의 선물	4월~5월	군장병/재소자/독거노인	(02)732-2183
3,000배 정진기도/무료한방진료	5월5일~6일/4월29일/5월20일	기도-조계사 진료-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02)723-5101 (02)733-7277 (031)255-2692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4월24일~5월29일	인사동	(02)2011-1892 (02)2011-1820
할머니와 함께 나누는 부처님의 마음	5월5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031)255-2692
병원 연꽃등 선물	4월25일~5월24일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서울대병원, 동대경주병원, 건대병원 등 17개 병원	(02)2011-1892
자비의 연꽃달기	연중	전국	(02)2011-1820

어린이 · 청소년포교 '복지코드'로 날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위탁 ·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이 어린이 청소년 복지와 포교에 앞장선다.

복지재단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가 건립한 일시청소년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해 5월중 개관할 예정이다. 두 기관 모두 경주가정폭력상담소장을 역임한 지호 스님이 시설장을 맡는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도 개최한다. 3000배 정진기도는 병마와 싸우는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1배에 100원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으로 올해로 7회를 맞는다.

복지재단은 또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3기 과제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실천과 제 확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건강대책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이 밖에 복지재단은 현재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과 성남시중원노인복지센터, 진도노인복지회관 등의 위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찰의 사회복지 실태와 불교사회복지실천가들의 종교성향을 측정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에서 열리는 제1차 학술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재단은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별칭을 공모하고 있다. (02)723-5101 **여수령 기자**

내포문화유적 복원

서산시, 1차 발굴 끝내

보원사지 등 충남 서산지역에 있는 내포 문화 유적에 대한 복원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4월 17일 서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에 대한 1차 발굴조사가 최근 끝남에 따라 4억원의 사업비를 다시 들여 내년 2월 중순까지 2차 발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국립 부여문화재 연구소가 맡아 진행하며 1차 발굴에서 드러난 대형 건물터의 구조와 범위, 부도, 탑비 주변 등의 유구 등을 확인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보호각이 설치되는 서산마애삼존불(국보 84호) 새 보호각은 마애삼존불에 자연채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의 비가림 시설만 설치한다. **김주일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 지방 봉축행사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연락처
용주사	점등식, 제등행렬	5월 24일	용주사-병점	(031)234-0040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용주사 대웅전	
월정사	함께 나누기	5월	군장병, 불우이웃, 복지관, 노인 등	(033)332-6664
	인도유물 전시회	5월 5일	월정사	
	점등식 및 봉축음악회	5월 20일	진원 고수부지	
	동자승 출가체험	5월 20일	연꽃유치원	
	교통안전 호신염주 달아주기	5월 20일	진부시내	
	연등축제	5월 20일	진부시내	
	행복등 밝히기, 연등행진	5월 24일	월정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월정사 대웅전	
법주사	연등축제	5월 24일	법주사-버스터미널	(043)543-3615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법주사 대웅전	
마곡사	전경 특별 기동대 위문	5월	사곡부대	(041)841-6221
	방생,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5월 24일	마곡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마곡사 대웅전	
은해사	봉축탑 설치	5월 4일	서문오거리	(054)335-3318
	영천사암연합회 법요식	5월 10일	영천 실내체육관	
	봉축위문 및 법회	4월 15일-5월 21일	군부대, 교도소 등	
	연등축제	5월 24일	은해사-치일리 일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은해사 대웅전	
불국사	자비의 손길	5월 24일	경로당, 대자원, 군부대, 교도소 등	(054)746-9912
	예술제		경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불국사 대웅전	
해인사	해인만다라 글짓기, 그림그리기 잔치	5월 12일	경내	(055)934-3002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해인사 대웅전	
쌍계사	봉축탑 점등식	5월 21일	전도삼거리	(055)883-1901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쌍계사 대웅전	
통도사	경로행사	5월 24일	통도사 자비원	(055)382-7182
	보궁 헌다제		통도사 사리탑	
	장엄등 경연대회		하노전 일대	
	연등축제		적멸보궁 대웅전 앞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통도사 대웅전	
고운사	봉축 전야제	5월 23일	고운사 대웅전	(054)833-2324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백양사	외국인노래자랑 및 제등행렬	5월 24일	경내	(061)392-7502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백양사 대웅전	
봉선사	군부대, 경로당 위문	5월	군부대, 경로당	(031)527-5974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봉선사 대웅전	
경기양평봉축위원회	연등축제	5월 24일	양평종합고등학교-군청 앞 사거리	(031)772-8776
의정부시암연합회	봉축법요식, 연등축제	5월 20일	시청앞 평화의 광장	(031)837-6114
	효 나들이	5월 26일	용문사, 남이섬	
수원시불교연합회	연등축제	5월 19일	만석공원	(017)754-7475
용인시불교연합회	점등식	5월 2일	김량장동 통일공원	(011)213-2206
	연등축제	5월 19일	용인중학교	
경기평택시암연합회	봉축 대법회 및 경로잔치	5월 9일	평택남부 문예회관	(031)655-3215
	연등축제	5월 24일	평택시내	
구리남양주시암연합회	경기북부 사암 음악예술제	5월 11일	남양주시 문화체육관	(031)594-7970
	봉축 대법회 및 장학금전달식	5월 11일		
	시청앞 점등식	5월	구리, 남양주 시청	(032)434-9910
인천불교시암연합회	연등축제	5월 19일	문화예술회관 광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동두천시암연합회	봉축 전야제	5월 21일	동두천 시민회관	(031)865-4045
	효잔치 한마당	5월 21일	소요산 야외음악당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동해시시암연합회	전통등 전시회 및 점등식	5월 4일	동해시문화예술회관	(033)594-7970
	큰스님초청법회 및 찬불가 경연대회	5월 12일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연등축제	5월 21일	동해중앙초등학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대전불교시암연합회	연등축제	5월 20일	보문중, 고등학교	(042)526-1080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천안불교시암연합회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5월 19일	천안삼거리공원	(041)557-1388
	자비 실천행사(교도소, 군부대)	5월 20일	천안교도소, 경찰서	
청주청원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5월 4일	분수대공원	(043)267-0108
	휘호 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불자노래자랑, 목판인쇄배부	5월 20일	무심천행사장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군부대, 교도소 위문	5월 22일	37사단, 청주교도소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당진불교시암연합회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5월 13일	당진 문예의 전당	(041)326-6008
고령시암연합회	연등축제	5월 24일	고령초등학교	(054)954-2400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대구봉축위원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4월 28일	국채보상공원	(053)623-6388
	선덕여왕 숭모제	5월 1일	부인사	
	어린이 대법회	5월 6일	K-2군 법당	
	찬불가 경연대회	5월 12일	남구대덕문화전당	
	아나바다 자선바자회	5월 18일	메트로시티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5월 19일	대구시내	
	연등축제	5월 19일	중앙로	
	봉축전야제	5월 23일	천태종 대성사	
	자비광명 기원 타종식	5월 24일	경상감영공원	
	각 구, 구청 군청, 경찰서 점등식	4월-5월	각 구, 군청, 경찰서	
	자비의손길(경로잔치, 떡나누기 등)	5월	자비의집, 칠곡구화사, 지산복지관 등	
의성시암연합회	봉축점등식 및 연등축제	5월 17일	의성종합운동장	(054)832-7979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구미시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4월 27일	분수공원	(054)481-2363
	봉축음악회	5월 11일	금오산 주차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포항시암연합회	연등축제	5월 19일	죽도초교-포항역	(011)803-7727
울진시암연합회	연등축제	5월 18일	울진터미널-새마실	(054)782-9280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진주시암연합회	경로잔치	4월 29일	문화예술회관	(055)747-0108
	자비의 손길	5월	교도소, 공군사령부	
	스님, 신부님 축구대회	5월 2일	경남문화예술회관	
	연등축제	5월 16일	연암공전	
	어린이청소년 부처님 그리기대회	5월 24일	월경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각 사암	
안동시암연합회	점등법요식 및 연등축제	5월 24일	안동초등학교-시내	(054)852-4520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각 사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봉축위원회 결성법회		코모도호텔 충무홀	(051)867-0501
	찬불가 합창 경연대회		부산문화회관	
	봉축 점등식	5월 9일	부산역 광장	
	연등축제(연합법회, 제등행렬)	5월 19일	사직실내체육관-시청 뒤 등대광장	
기장시암연합회	연등축제	5월 20일	기장군청-기장시내	(051)727-8751
울산광역시봉축위원회	점등식/연등띄우기	5월 12일	태화강 둔치	(052)266-3318
	봉축 글짓기 대회			
	장애우 나들이	5월 13일	울산대공원	
	봉축법요식	5월 16일	울산종합체육관	
	연등축제	5월 17일		
광주광역시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5월 4일	전남도청 앞	(062)376-3223
	호국영령추모 천도재	5월 18일	망월동 국립묘지	
	연등축제	5월 21일	광주공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해남불교사암연합회	자비의 손길	5월	군부대, 복지시설 등	(061)534-5502
	아기부처님 점등식	5월 1일	해남터미널 분수대	
	대중강연회	5월 16일	해남군청	
	연등축제	5월 18일	해남군청-터미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각 사암	
전주봉축위원회	기원탑 점등식	4월 28일	롯데백화점 앞 통일로	(063)277-3497
	연등제	5월 9일	35사단 세병호	
	불우이웃돕기	5월 10일~24일	불우시설	
	위문법회		군부대, 교도소 등	
	어린이 큰잔치	5월 12일	전주 경기장	
	연합 합창제	5월 17일	전북학생공연장	
	인경체험, 거리 관불의식	5월 19일	연등축제 행사장	
	연등축제		전주시청광장	
	경로잔치	5월 24일	금산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각 사암	
	청소년 모악축제	5월 26일	금산사 특설무대	
조계사	이웃을 위한 등달기	4월 9일~5월 24일	경내	(02)732-2183,4
	등만들기 마당	4월17일~5월	경내	
	동자승 출가	5월 초순	경내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벼룩시장	5월 5일	대웅전	
	어버이날 경로행사	5월 7일	경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5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3000배 용맹정진	5월 12일	대웅전	
	장애인 수계법회	5월 13일	대웅전	
	자비의 선물	5월 16일	경내	
	템플라이프	5월 19일~21일	조계사, 인사동, 동대문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축 문화마당	5월 24일	대웅전	
봉은사	코엑스 봉축등 점등	4월 27일	법왕루	(02)511-6070
	동자승 출가 체험	5월 5일	선불당	
	어린이 행사	5월 5일	법왕루	
	파라미타 행사	5월 13일	보우당	
	템플스테이 템플라이프	5월 17일~23일	봉은사 수련원	
	자비 나눔 행사	5월 18일~24일	서울의료원, 교도소, 군부대	
	봉축문화공연, 봉축 점등식	5월 24일	종루 주변	
	나눔으로 하나 되는 작은 음악회		종루 주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대웅전	
도선사	수계식 및 위안법회	5월 4일	안양교도소	(02)993-3161
	어린이 사생대회	5월 5일	경내	
	관내 경로위안잔치	5월 8일	경내	
	농촌살리기 직거래장터	5월 17일~19일	경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	대웅전	
	산사음악회 및 점등식		경내	

"명상 통해 마음의 병 치유"

한국명상치료학회 14일 창립 학술대회 개최
인경 스님 "현대인들 심리치료에 큰 도움 될 것"



군 입대 5개월 만에 정신과에 입원한 모 병장(21). 6살 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과 어머니의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며 우울증을 앓아 온 그는 군대에서 자해소동까지 벌여 정신치료를 받게 됐다. 그의 치료를 맡은 김말환 교수(동국대 상담학과)는 '염지관(念止觀)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염지관 명상수행은 몸의 감각을 느끼고 관찰함으로써 고통을 발생시키는 마음의 현상 자체를 자각하고 수용하는 명상법을 말한다. 느낌을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는 3단계를 거치며 정신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김 교수를 찾은 병사 역시 자신의 어려움과 마음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이기고 병원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명상'은 오늘날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심리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상을 이용한 심리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 토대를 쌓아갈 한국명상치료학회가 4월 14일 창립했다. 동국대학교 다향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진)이 원장에, 김말환 교수가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학회 창립을 이끌어 온 인경 스님은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명상은 현대인들의 심리치료에 큰 도움이 되며, 이미 서구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소위 '명상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현대인들은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명상치료는 전통적인 명상 수행과는 달리 심리학과 불교라는 두 영역이 만나 이뤄지는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명상치료학회가 4월 14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창립했다.

이를 위해 한국명상치료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학술모임 조직, 논문집 <명상치료연구> 발간, 명상치료 교육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상치료를 연구 지도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학회 차원의 공인된 '명상치료사증'을 발급하는 등 명상치료 자격증 제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열린 창립학술대회에서는 김말환 교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군인의 치료과정을 통해 '염지관 명상의 심리치료 사례연구'를, 안양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사고의 역기능과 그 해결: 붓다의 가르침과 아론 벡의 인지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창립총회와 학술대회에는 명상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전문가와 학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여수령 기자

'불화' '화불' 뭐가 다르죠?

허흥식 교수, 동국포럼서 차이점 발표

"회화사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불화(佛畵)라는 용어와 신앙심을 가지고 제작된 불교예술을 지칭하는 화불(畵佛)이란 용어는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허흥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원)는 4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동국포럼(이사장 정재철) '고려화불 특별초대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날 '고려화불에서 불화로, 다시 화불로 부활'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회화의 일부를 지칭하는 '불화'와 신앙의 대상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화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화불은 독립된 부처로 신앙되는 기능 있어야"

허 교수는 <고려사>에서 '화불'이란 용어만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화불은 불교가 국교였던 시기나 신앙심을 가진 이들이 사용한 언어이고, 불화는 회화이론이나 유학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불이나 괘불과 더불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용된 언어인 화불은 고려를 정점으로 조선전기까지 주로 쓰였고, 조선후기와 일제시대를 거치며 불화란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됐다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허 교수는 또한 "장엄을 위해 제작된 판화와 변상도 같은 작품은 화불이라 볼 수 없으며, 불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화불이라 지칭한다"며 "때문에 규모가 큰 작품이라도 장엄에 쓰인 후불(後佛)은 화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허 교수는 "불화란 불교와 관련된 회화라는 넓은 의미로, 화불은 독립된 부처로 신앙되는 기능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이인자 명예교수(경기대)가 '고려화불과 고려불화 재현의 의의'를, 정우택 교수(동국대박물관장)가 '고려불화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고려불화 복원에 힘써온 혜담 스님(계태사 주지)의 작품이 선보인 '고려화불 특별전'은 18일부터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1실에서 열렸다.

여수령 기자

'순백의 깨침' 보러오세요

화장사, 가침박달꽃축제 개최 5월 5일까지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순백의 '깨침의 꽃'으로 꽃 공양을 올린다. 화장사는 가침보존회와 함께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제5회 가침박달꽃축제'를 개최한다.

가침박달꽃축제는 학술세미나로 막을 연다. 4월 26일 오후 3시 명암타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박재인 교수(충북대 산림학과)가 가침박달나무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4월 30일 오후 1시 화장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는 초의차문화연구원(이사장 여연) 충북지부의 창립식과 다도시연대회가 열린다. 5월 4일 오후 2시 화장사 마당에서는 전통음식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꽃씨 뿌리기, 야생화 심기, 그림그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가침박달나무는 세계적 희귀수목으로, 4~5월경에 순백색의 꽃을 피운다. 화장사 뒷산에 조성된 만여 평의 가침박달나무군락지는 충청북도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로 지정돼 있다.(043)255-5758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무크지 <불교와 상담> 창간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불교상담 연구 성과를 담은 부정기 간행물 <불교와 상담>을 창간한다.

4월 25일 출간될 창간호에는 지난 1월 열린 '제3회 불교와 상담 워크숍' 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긴다. 권경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연재와 김남선 교사(구암중학교)의 '청소년 불교상담 프로그램'도 실린다.

개발원은 4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창립 17주년 기념법회 때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간호를 배포할 예정이다. (02)737-8803

여수령 기자

핀란드서 한국불교 전시
화엄사, 간화선 다도 등 소개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에서 한국불교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사진).

화엄사 포교국장 대요 스님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지인을 상대로 간화선과 다도, 불구전시, 화엄사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대요 스님은 "참가한 현지인들은 핀란드에 처음 소개된 한국불교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추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불교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화엄사는 앞으로 핀란드 정부와 지속적인 교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제3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며 입적할 때까지 27년 동안 오대산문을 나서지 않았던 한암 대종사.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한암 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3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열린다.

화엄사상의 중심처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화엄경 대강백 스님들을 초빙해 열리는 수행학림 첫째 날은 입재식을 시작으로 강의와 저녁예불, 나를 닦는 108배로 진행된다. 둘째 날은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좌선법 강의 및 지도, 철야정진으로 이어지며 셋째 날 전나무 숲길 포행 및 지장암 순례, 한암대종사 탄신재, 한암대종사 선사상 국제학술세미나로 막을 내린다. (033)332-6661

남동우 기자

제1회 어린이 방생법회 안내

안성 도피안사에서는 이번「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기쁨을 깨닫게 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불심(佛心)을 열어 주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어린이 방생법회」**를 처음 개설, 봉행하오니 어린이 교육에 뜻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방 생 장 소 : 안성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경내「환희지(歡喜池), 이구지(離垢池), 선혜지(善慧池), 법운지(法雲池)」

◆ 시 간 : 불기 2551(2007)년 5월 6일 (일) 10시30분

◆ 참 가 비 : 1가족당 10,000원

(참가하시는 가족에게 점심공양과 선물을 드리며,장소관계로 순서에 의해 50가족만 접수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2. 어항이나 집에서 기르던 물고기는 방생할 수 없고, 또한 서로 잡아먹는 물고기들도 방생할 수 없습니다.(방생 물고기 준비는 주최 측에서 함)
3. 방생을 해보면 커서 사냥이나 낚시를 인생의 취미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4. 자연생태에 대한 생태학자의 강연이 있습니다.

주최 : **안성 도피안사 · 사찰생태연구소**
후원 : **(재)한택식물원 · 서일농원**

■ 연 락 처 ■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우 456-893)
• 전 화 : 031)676-8700 / 전 송 : 031)676-8704
• Home Page - http://www.dopiansa.or.kr • E-mail : dopiansa@kornet.net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을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원서목록 영인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스님 및 불자님들의 문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보급합니다.
보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양해 바라옵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도 서 명	저 자 명	보관수량	가 격
望月佛敎大辭典(全10권)	望月信亨	1	350,000
佛光大辭典 (全8권)	臺灣佛光寺	1	200,000
佛書解說大辭典 (全14권)	小野玄妙	2	350,000
新修大藏經 索引 (全31권)		1	900,000
祖堂集索引(全3권)	柳田聖山	2	100,000
慧遠硏究 (全2권)	木村英一	1	50,000
高麗華嚴變相圖(고급한지인쇄본)		2	580,000
韓國近世佛敎百年史(全2권)		30	55,000
漢語大辭典		1	500,000
선문염송(불교문화연구원)	木村英一	1	200,000

法향기 茶향기 한 호흡에 어우러진 '한 집'


화개골에서는 집들과 차밭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⑩ 하동 쌍계사


쌍계사.

녹차 명인 김동곤씨

화개골서 차 재배 10대째 "백탄 숯불로 덖음 마무리"



쌍계사 아래에 '차 시배지'라는 표지석이 있다. 신라 때 김대렴이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와 심었다는 곳이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에서 '바위틈에서 나는 차가 으뜸이요, 자갈 섞인 흙에서 나는 것이 다음이며, 또 골짜기에서 나는 것이 으뜸인데 이 화개동의 차밭은 다 골짜기 바위틈에 있다' 하였다. 골짜기 깊은 야생 차밭에서 김동곤(59 · 사진)씨를 만났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대표급 차 명인이다. 2006년 농림부로부터 우전차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전통식품 명인'에 지정되었고, 2002년에는 제4회 국제 명차 품평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기도 하였다.

"저희는 마지막을 항상 백탄 숯불로 덖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비법을 공개해도 되느냐는 말에, "다 공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요"라고 말하며 웃는다.

화개골에서 살아온 게 자신이 10대째라는 토박이 김씨. 그의 부친은 쌍계사 스님들과 교유한 결과 쌍계사 비전(秘傳)인 '참나무 장작 무쇠솥 덖음차 제다법'을 터득했고, 그는 차의 대가인 금송 스님과 덕룡 스님을 사부로 모시고, 선가의 제다법과 다도를 지도받았다.

마무리 덖음을 따로 한다는 게 특이하다.

"장마 지난 차 맛이네. 안 좋은 물건은 또 설 지난 차 갈구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봄에 만든 차가 장마 지나면 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 차도 맛내기 덖음이 가장 중요하죠."

김씨는 녹차만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주머니들 일년 내 일거리 안 끊기게 하기 위해" 감잎차, 뽕잎차, 국화차 등 대용차를 한다는 김씨.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 차 향기가 난다.

벚꽃이 끝물이다. 최후의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꽃길을 따라 화개골로 향한다. 처음 우리나라에 차를 들여온 김대렴이 차를 심었다는 곳, 차시배지가 있는 골짜기답게 화개골 산자락에는 야생 녹차가 많다. 꽃길을 뒤로 하고 석문 앞에 이르니, 길목마다 봄나물을 파는 사람들이다. 쑥, 정구지(부추), 씸바구(씀바귀), 민들레, 두릅, 쑥부잼이(쑥부쟁이), 머구(머위) 등 아예 들판 하나를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이름을 물으니, "칠십 넘은 할매한테 멀라고 물어본다?"고 말하는 이도순(71 · 신촌) 할머니. 옆에서 장난스레 "이또순이라"하는 장난말이 들린다.

"석문 우에 딴 부락 있어. 모갑이라 하고, 여기는 석문이고, 요 아래가 밑에 부락이 신촌이고, 운주리 신촌 운주리 석문 한 구역인기라."

이도순 할머니의 설명이다. 할머니 옆에는 미나리, 현호색, 원추리, 토란대 말린 것, 감자 부각, 뽕나무 껍질, 밤, 호박 말린 것, 고사리 등을 파는 김숙희(51 · 모암)씨가 있다. 마을 이름은 석문이요, 골짜기는 쌍계다. 바위 두 개에 '쌍계'와 '석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신라의 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지팡이로 쓴 글씨를 각자 하였다고 한다.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3년(724년)에 대비(大悲)와 삼법(三法)이 창건하였다. 두 스님이 선종의 육조인 혜능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귀국하였는데, 꿈에 "눈 쌓인 계곡 위 칡꽃 피는 곳에 봉안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에 자리를 찾던 중 호랑이의 인도로 현 쌍계사 자리에 이르렀다. 이름을 옥천사라 하였는데, 후에 두 개의 계곡이 하나로 모인다하여 쌍계사라 하였다.

석문을 지나 매표소에 이르는 길에도 상인들이 줄지어 있다. 각종 나물은 물론이요, 석이버섯, 표주박, 매화차, 국화차, 녹차 등 별의별 것이 다 있다. 한참 숲길을 올라가야 일주문이 보인다. 일주문에 이르기 전 조그마한 돌다리가 나온다. 흐르는 물은 쌍계 중 하나이다. 부처님의 세계와 속세가 물 하나를 사이로 두고 나뉜다. 사실 삶과 죽음도 물 하나 건너이고, 우리네 목숨이란 것도 물 하나 건너온 것 아니던가.

물 하나 건너 일주문을 넘는다. 산사(山寺)인지라 계단이 많다. 한 계단을 오르면 금강문이고, 또 한 계단을 오르면 천왕문이다. 천왕문을 지나면 최근에 조성한 구층 석탑이 눈에 띈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탑으로 불기 2534년(1990년)에 완공되었다.

대웅전 앞 비석은 진감 선사의 대공탑비로 진성여왕 원년(887년)에 건립되었으며, 글을 짓고 쓴 이는 고운 최치원이다. 천년 넘은 비석의 여기저기에는 총탄 자국임이 분명한 상처가 많다. 우리 역사의 수난기를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리다.

사람들은 서둘러 다니며 사진 찍기에 바쁘다. 나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진기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하는 내 뒤통수에 누군가가 죽비를 내리친다. 내 발등보다 낮은 곳에서 큰개부랄꽃과 금불초 같은 것들이 열심히 꽃을 내밀고 있다.

절을 나오니 고운 한복 차림의 최상수(88 · 화개) 할아버지가 손을 잡는다. 막걸리 값이나 벌려고 한다며 춘란을 팔고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나물 캐는 여자들이 보인다. 직접 캔 나물을 팔고, 녹차 딸 시기가 되면 녹차를 따서 덖고 하는 것이 이 마을 여인네들의 일이다.

녹차 따는 시기라 모두들 바빠
마을 동학혁명 때 전소 돼
"진감 국사 대공탑비에 난 구멍
한국전쟁 아닌 임진왜란 흔적"

녹차 딸 시기가 다들 바쁘다. 최택순(67 · 석문) 할머니가 직접 덖은 차가 있다고 해서 산다고 했더니, 차를 내오고 나서 약술을 한 잔 권한다. 보기에도 걸쭉하다. "응개나무 고로쇠 물 가지고 담궜어요. 우리 아저씨 약 할라고." 조금 팔라 하였더니, "천금을 줘도 안 팔아요" 한다. 그 말 속에 금슬 좋은 부부의 애정이 듬뿍 들어있다.

마을 중앙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나무 옆에는 신체를 따로 두었는데, 둥글게 돌을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웠다. 과거에는 섣달그믐에 제를 지냈는데, 최근에는 정월 보름날 정오에 제를 지낸다. 먼저 마을 뒷산에 있는 큰 바위에 산신제를 지내고, 그 후 당산나무에 당산제를 올린다. 경로당 총무를 지냈던 한병하(71 · 석문) 할아버지는 마을 내력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

"동학 난리 때 다 전소 되었대요. 옛날에는 윤판집(통나무를 井자 모양으로 겹치게 쌓은 다음, 흙을 발라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이었는데, 흔적 남아 있는 것 보니, 그렇게 지어져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새마을 사업 때 지은 거죠."

한 때 당산제를 지내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 그런데 구경우(82 · 석문)라는 분이 선몽을 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여 다시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한다.

"진감 국사 대공탑비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한국전쟁 때 그랬다 하는데, 그거 임진왜란 때 그런 거에요. 내가 그걸 왜 아냐면, 일제 때 초등학교 때 개학을 하니, 교실이 각 학년 당 하나씩밖에 없는 거라. 그래 쌍계사에 분교를 해서, 삼신리, 정금리, 운수리, 용강리까지 해서 쌍계사로 분교를 해서 간 거여. 그 때도 비에 총구멍이 있었어."

한옹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고생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지리산 자락만큼 혹독하게 전쟁을 치룬 곳도 드물 것이다. 마을과 절은 한 집 같다. "절에 뭔 큰일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법당에 올린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거 경로당에 내려주고, 상수도도 쌍계사하고 같이 묵습니다. 한 탱크에서 묵는 거죠. 그래 한 집 식구나 마찬가지죠."

석문을 나서며 바라보니, 시리게 맑은 강물에 비친 꽃색이 곱다. 살아서도 신선이 되어 영생한다는 삼신동이 아니던가. 석문에 기대어 화개를 바라보니, 내 안에서도 꽃이 피어난다.

쌍계사=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춘란 파는 최상수 할아버지.



일주문



속초노인복지관 위탁

속초 신흥사복지원 대표이사 오현 스님은 4월 17일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됐다. 신흥사는 3년간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대불련 회장에 장학금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4월 18일 포교원장실에서 2007년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용석(전남대 사회학과 02학번) 회장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재연 스님 초청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4월 30일 오전 9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재연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한다. (055)934-3107



불일보조국사 종재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5월 13일 송광사 국사전에서 제797주기 불일보조국사 종재를 봉행한다. 12일에는 대웅보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연다.



삼존불 점안식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4월 28일 오전 10시 등명낙가사 청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033)661-5878



개관 9주년 기념행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산 스님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관 9주년 기념행사 및 장애인 문화체험 등의 장애인의날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지역노인초청 효도잔치

울산 도솔암 주지 혜산 스님은 4월 19일 지역 노인 400여명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열었다. 혜산 스님은 18년째 매년 삼월 삼짇날 효도잔치를 열어왔다.



전통문화학교 1억원 기탁

조계종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4월 18일 개교 7주년을 맞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무료의료검진 실시

반갑다연우야 구자연 단장은 4월 21일 경기도 안산 둥지청소년의집을 방문해 소아과 · 치과 검진 등의 이동무료의료검진과 점심 공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어린이생태문화교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회장은 4월 28일 소요산 일대에서 제3차 어린이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745-5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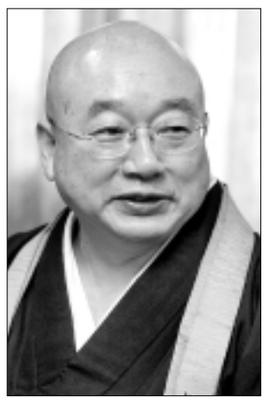
"남선사 대장경은 모든 불자의 것입니다"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작업 전폭 지원 日 하나조노大 학장 아베코산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花園)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함께 일본 남선사(南禪寺) 소장 초조대장경판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중요한 자료가 국내에 공개된 것은 하나조노대 측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작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는 하나조노대 학장 아베 코산(阿部浩三 · 사진) 스님이 4월 18일 방한했다. 18일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찾은 아베 스님은 "한 · 일간 대장경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베 스님은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묘심사(妙心寺) 선원장을 역임한 선승(禪僧). 2005년 하나



조노대 7대 학장에 취임한 후 지난 3월 묘심사 주지에 취임하는 등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을 두루 거친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스님은 "한국인들이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해 줘 자료 공개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선사가 보관해 온 대장경은 일본의 것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600여 년 전 법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대장경을 모셔온 선조들의 뜻이 오늘날 이 같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대장경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스님은 "하나조노대학이 고려대장경 1000년 행사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된 데 감사하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대장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장경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스님은 19일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팔만대장경을 관람한 후 21일 출국했다. **여수령 기자**

"밝고 경쾌한 노래로 포교 나서요"

찬불가 CD 내고 음악포교 나선 유현주씨

"찬불가를 대중화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가요와 가곡 동요 등의 장르를 한데 모은 찬불가 CD를 발매한 유현주(32, 조계종포교사단 합창단 지휘자 · 사진)씨. 유씨의 찬불가 CD에는 '마음' '나도 사랑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의 부처' 등 8곡이 각각 우리말과 영어 두 가지 형태로 실려 있다.

유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고 경쾌한 노래와 일상에서 느끼는 쉬운 언어로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 수국사 어린이회 출신인 유씨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은 불음(佛音)을 전하는 꿈을 키우는 밑바탕이 됐다"며 "불교음악이 우수한 잠재력으로 서구의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씨는 "한국의 훌륭한 전통을 음악으로 전해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1998년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유씨는 불교와 포교를



겸하기 위해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2년간 공부했다. 2006년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후 본격적인 찬불가수의 길을 걷기 위해 2005년 솔로로 데뷔했다. 2006년 8월 대만에서 열린 창작 찬불가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한 유씨의 대표곡은 '작은 마음의 노래' '염불을 하노라면'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이사장에 정여스님 추대

한국운불련 정기총회 및 수련대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4월 15일과 16일 삼량진 여여정사에서 창립13주년 기념총회와 수련대회를 갖고 제8대 회장에 서상준씨를 선출했다. 또 향후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에 정여 스님을 추대했다.

전등사 게이트볼·경로잔치 지역노인 '얼쑤'



강화 전등사(주지 장윤)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전등사기 전 강화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4월 14일 강화 강남고등학교에서 열렸다(사진).

강화도 내 61개 게이트볼 팀 1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는 전등사 주지 장윤 스님과 이경재 국회의원, 이상설 강화군의회의장, 배상훈 강화경찰서장, 진익천 강화 교육청장, 정동렬 강화 노인회장, 구광회 강화 게이트볼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전등사 주지 장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고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불은면 두은리 팀이 우승했고 양도면 도장리 팀과 길정리 팀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다.

한편 전등사는 게이트볼 대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함께 열었다.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어르신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도 무료진료팀을 지원,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임연태 기자**

교육인적자원부 불자회 강화도 일대서 첫 성지순례



교육인적자원부불자회(회장 이만희, 이하 인불회)가 작년 8월 창립 이후 첫 나들이에 나섰다. 인불회 회원과 가족 30여명은 4월 14일 지도법사 소운 스님, 김광조 고문 등과 함께 강화 전등사와 보문사에서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인불회는 매월 한차례 정기 법회와 공부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지 순례도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춘천경찰서 경승실 개원



강원지방경찰청 경승단(단장 원행)은 4월 18일 춘천경찰서 경승실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강원불교연합회와 태고종 강원교구, 천태종 강원지구 등이 주최하고 강원지방경찰청 경승지단이 주관한 이날 개원법회에는 원행 스님(구룡사 주지)과 청평사 주지 홍진 스님, 석왕사 주지 백운 스님, 춘천불교방송 김정특 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6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많으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 및 지원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재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16회 행원문화상을 시상코자 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 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미술,연극,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방송,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 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 1 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 부

3.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07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4.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일

2007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시상일 : 2007 년 9월 14일 금요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 수 비 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맑은 차와 형형색색 화전 봄을 먹는다

한국차문화협회 회원 500여 명 춘경제 전통 되살려





'전주화전놀이' 현장

스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스님이 계신 그곳 강원도에는 4월에도 큰 눈이 내렸다지요?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계절의 변화까지도 변덕스럽게 만드나 봅니다.

하지만 남녘땅에선 푸른 찻잎이 고개를 내밀고 산등성이에는 빨간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봄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저는 봄이 포근히 내려앉은 전라북도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위원회와 한국차문화협회가 마련한 '전통 차(茶)와 함께 즐기는 2007 전주 화전놀이'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로부터 음력 삼월 삼일, 삼짇날을 봄의 시작으로 여겼다지요. 삼짇날 즈음이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고, 겨울잠 잤던 뱀도 깨어나고, 나비와 새도 너울너울 날며 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예전 사내아이들이 물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고, 여자아이들은 풀을 뜯어 각시인형을 만들어 놀며 봄을 만끽했던 즐거움을 요즘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15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린 '전주화전놀이'는 잊혀져가는 우리네 봄맞이 풍습을 되살려보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산과 들에 핀 진달래며 유채꽃을 따다 찹쌀가루에 반죽해 지져내 화전(花煎)을 만들고,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한해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풍습 말입니다. 눈과 귀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봄을 먹는' 행위를 통해 몸과 마음으로 흠뻑 봄기운에 젖어 드는, 그야 말로 진정한 '봄맞이'가 아니겠는지요.

이날 전주한옥마을에서는 한국차문화협회 회원 500여 명이 둘러 앉아 갖은 꽃과 봄나물로 화전을 부쳐냈습니다. 산 하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을 보니, 봄이 왔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화전 하나 입에 넣으니 진달래 꽃잎이 짙은 향기를 풍겨 냅니다. 이 봄기운을 스님께도 보내드리고 싶어, 서울에 오자마자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봄을 맞는데 스님들의 수행을 도와주는 차도 빼놓을 수 없지요. 곡우인 4월 20일에는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찻잎을 따기 시작합니다. 찻잎 하나하나를 정성껏 따서 덖고 말려 햇차를 만들고, 이를 경건한 마음으로 우려 부처님께 올리는 헌공다례(獻貢茶禮)는 그 기원이 신라 경덕왕 때 충담 스님의 차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은 해마다 삼짇날과 구중일(음력 9월 9일)이면 미륵세존께 지성으로 차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들도 햇차를 꺼내 우려냅니다. 상대가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맑은 차 한 잔 앞에 둔 서로는 그저 '다우(茶友)'이자 '도반(道伴)'일 뿐이지요. 찻잔을 주고받는 손길에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이 실립니다.

저는 경건하기까지 한 봄맞이 행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저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 틈에 섞여 차와 화전만 욕심껏 즐겼습니다. 몇 시간씩이나 봄 호사를 누린 끝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차 한 잔으로 작은 기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따뜻한 봄이 오게 해 달라고요. 그때가 오면 제 마음에 불성(佛性)의 씨앗이 싹을 틔워 만개하겠지요. 스님이 걸으시는 수행의 길에도 따스한 봄기운을 보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청안하십시오.

전주/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 회원들이 4월 1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주화전놀이 행사에 참가해 화전을 부치고 있다. (왼쪽) 햇차를 우려 손님들에게 권하는 차문화협회 회원들.(오른쪽 아래) 송하진 전주시장과 한국차문화협회 이림 전북지부장 등이 전주 비빔밥을 함께 비비며 화합을 기원했다.(오른쪽 위)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5> 공양이나 시주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원효 스님은 "베푸는데 인색하고 재물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마구니 권속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아들이다[慳貪於物 是魔眷屬 慈悲布施 是法王子]"라고 하였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널리 베풀어야 할 수행자가 시주물을 탐한다면 이는 마구니임에 틀림없다. 승복을 입고 재물을 탐하는 수행자는 공덕을 많이 닦아 놓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칼을 갈다 닳아버린 숫돌처럼 그 공덕이 다 없어질 것이니 그 뒤에 오는 과보를 어찌 할 것인가? <선가귀감> 66장에서 말한다.

故曰 修道之人 如一塊磨刀之石 張三也來磨 李四也來磨 磨來磨去 別人刀快而自家石漸消 然 有人 更嫌他人 不來我石上磨 實爲可惜.

그러므로 말하기를 "수행자는 칼을 가는 한 덩어리 숫돌과 같다. 장 서방의 셋째 아들이 와서 칼을 갈고 이 서방의 넷째 아들이 와서 칼을 갈면 그들의 칼이야 예리하게 잘 들겠지만 숫돌은 점점 닳아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숫돌에 칼을 갈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장에서는 칼을 가는 한 덩어리 숫돌에 수행자를 비유하고 있다. 커다란 숫돌에 이 사람이 와서 칼을 갈고 저 사람이 와서 칼을 갊으로써 그 사람들의 칼이야 잘 들겠지만, 반면에 숫돌 덩어리는 점점 닳아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는 중국 송대(宋代)의 속어이다. 중국에서 흔한 성씨들인 '장씨네 집안의 셋째 아들[張三]'과 '이씨의 집안의 넷째 아들[李四]'이란 뜻이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공이공(張公李公), 장삼여사(張三呂四), 갑남을녀(甲男乙女), 모갑모을(某甲某乙) 이라는 말들도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공덕을 지으려고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공부 잘하는 수행자를 복전(福田) 삼아서 그에게 공양하고 시주함으로써 많은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수행자가 시은에 보답할 수 있는 공부를 이루어 그들에게 많은 공덕을 회향할 수 있는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숫돌이 닳아서 없어지듯 그동안 스스로 쌓아놓은 공부만 잃게 되어 마침내는 부처님의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만다.

신도들이 공덕을 지으려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야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일이지만, 공부해 놓은 것이 보잘 것 없어 더 큰 공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수행자로서는 시은이 두터워져 마침내 그 빚에 눌리게 된다. 끝내는 도의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삼악도에 떨어져 무거운 업보를 받게 되는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법의 원리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숫돌에 갈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의복이나 음식, 재물 같은 공양물을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못마땅해 하면서 출가인의 본분에 힘쓰지 않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如此道人 平生所向 只在溫飽.

이런 수행자가 평생 바라는 것은 오로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니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애욕을 떨쳐낸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 하고, 세속의 삶을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우리는 출가라고 한다[離心中愛 曰沙門 不戀世俗 曰出家]"

출가한 수행자란 이미 모든 애욕을 끊고 세속의 삶을 떠나 부처님처럼 맑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수행자가 세간 사람들처럼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따듯하게 사는 것에만 급급하여 부처님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모른다면 이는 아름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의 복전이 되려 함이니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무거운 거북이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커녕 자신의 업도 닦지 못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업장을 녹여 줄 수 있겠는가. 세상의 즐거움이 뒷날에는 괴로움인 줄 모르고 욕심내고 집착하여 업을 쌓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옷을 입고 번뇌를 벗어나는 지름길로 접어들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야할 수행자가 세속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재물이나 이성(異性)에 대한 집착을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재물이나 이성을 보면 반드시 이들을 바른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 야운 스님이 이르기를 "몸을 해치는 것은 이성보다 더한 것이 없음이요, 도를 잃게 하는 근본은 재물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이다[害身之機 無過女色 喪道之本 莫及貨財]"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가 재물과 이성을 가까이 못하도록 이르시기를 "수행자는 이성을 호랑이나 독사 보듯 해야 할 것이요, 비싼 패물은 나무나 돌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재물이나 이성 때문에 세속 사람과의 인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를 닦는 마음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믿고 존경하는 것이 성인과 같을 것이다. 남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수행을 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존중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을 것이다. 출가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모든 반연부터 떨쳐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서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세상사람 그 누구인들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을 마음이 없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함은 욕망 가득한 세속의 삶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의 인연을 끊고서 늘 검소한 옷차림과 간단한 살림살이로 굶주림과 배부름에 무심하다면 도는 저절로 닦아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세상이 저절로 완성되어 갈 것이다.

야운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爲他爲己雖微善 皆是輪廻生死因 願入松風蘿月下 長觀無漏祖師禪

나와 남을 위하는 일 좋다고 해도
모든 일이 알고 보면 생사의 끈들
솔바람에 밝은 달빛 벗을 삼아서
맑디맑은 조사선을 닦아 가리라.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세속 인연 많아질수록 도 닦는 마음 멀어져
출가한 뜻 저버리지 말고 반연부터 떨쳐야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업경대(業鏡臺)

업경대는 지옥의 염라대왕(閻羅大王)이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죄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염라대왕업경 또는 업경륜(業鏡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며 육도(六道) 중 가장 고통이 심한 곳으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사람이 죽어 지옥에 이르면 염라대왕은 업경대 앞에 죄인을 세우고 생전에 지은 죄를 모두 털어놓도록 한다. 업경대에는 그가 생전에 지은 선악의 행적이 그대로 나타난다. 염라대왕은 그 죄목을 일일이 두루마리에 적는다. 죄인의 공술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업경대에 죄가 비추어지지 않으면 심문이 끝난다. 심문이 끝나면 두루마리를 저울에 달아 죄의 경중을 판가름하고, 그에 따라 가야 할 지옥이 정해진다.

<예수시왕생칠경>에는 '재행계행 더럽혀 닭과 돼지 죽인다면 업경대는 분명하여 그 죄상을 못 피해도 시왕경과 존상 모셔 지극 정성 참회하면 염라대왕 판단하여 그 죄악을 사면한다' 했다. 염라대왕의 판단과 믿음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문 앞에서 울면서 이를 지켜보다가 죄를 변호해 주기도 한다.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抄資持記)>는 정월 · 5월 · 9월에 업경륜이 남섬부주(南贍浮州)를 비추는데, 선악이 모두 거울에 나타난다고 했다. <지장보살심인연시왕경(地藏菩薩心因緣十王經)>은 사방팔방 업경을 달아두어 일체 중생의 업이 마치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같이 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8>



상담 장면

현대 상담심리학에서는 개인면접상담을 상담의 기본으로 본다. 따라서 상담의 정의나 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할 때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개인 면접 상담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다.

개인 면접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면 관계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만의 공간이다.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내담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래서 개인 상담실은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적당한 넓이를 갖추고, 다른 방에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 시설을 해놓는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놓는다. 상담 도중에 상담자는 다른 방문객의 내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전화나 그 밖의 메시지도 받지 않는다. 또한 내담자에게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받지 말도록 권한다. 그래야 상담에 전념하여 상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부처님의 교화 활동을 상담으로 볼 때, 부처님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형화된 상담 장면은 없었다. 상담자인 부처님과 내담자인 외도나 제자, 재가자가 부처님과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따로 만나질 않았다.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나 상담 장소였고, 내담자 역시 주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부처님과 내담자의 만남에는 부처님의 시자(侍者)인 아난다 존자가 거의 대부분 배석하고 있었다. 불경의 첫머리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을 한 주인공이 바로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모신 아난다 존자다. 불경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들은 설법 내용과 배경, 그 과정을 구술로 전한 것을 후세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부처님과 내담자 둘뿐이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는 늘 아난다 존자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과 내담자에 아난다 존자만 배석한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수십 명이 함께 있기도 했고, 수백,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상담(교화)이 진행되었다. 부처님을 찾아온 내담자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별로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궁금한 바를 여쭈었으며, 부처님 역시 그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또한 명료하게 답을 해주었다.

이렇게 경전에 나타난 상담 장면은 현대의 상담 장면과 많이 다르다. 당시의 내담자들은 우리들과 달리 삶이 좀 더 담박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날의 내담자들이 상담실을 찾으면서 비밀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꼽는 것을 보며 나름대로 추량해 본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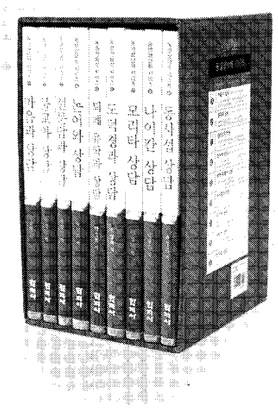
부처님은 상담 장소 등 주변 환경 신경 안 써
내담자가 많고 적고 떠나 명료하게 문제해결



그림 : 문병성

국내 최초로 동양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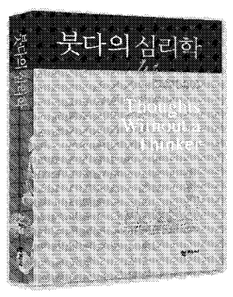
① 마음과 상담 ② 불교와 상담
③ 선문답과 상담 ④ 논어와 상담
⑤ 퇴계 유학과 상담 ⑥ 도덕경과 상담
⑦ 모리타 상담 ⑧ 나이칸 상담
⑨ 동사섭 상담

박성희 저 | 4×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다

상담의 발상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담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져 보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엡스타인 저 | 전현수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피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당신의 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의학프로그램
치매예방과 뇌 장수법
장현갑 외 공역 | 신국판 | 504면



과거를 넘어 미래를 여는 NLP의 새로운 접근
시간선 치료
설기문 저 | 신국판 | 248면



신념을 바꾸면 능력과 운명이 바뀐다
NLP 기본법칙을 통한
신념의 기적
로버트 딜츠 외 공저 | 전경숙 외 공역 | 신국판 | 328면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 下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 신국판 | 384/352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조옥경 외 공역 | 국배변형판 | 252면



세 살부터 여든까지, 두뇌를 깨우는 140가지 비결
두뇌계발비결
리처드 레비톤 공저 | 김종석 역 | 신국판 | 52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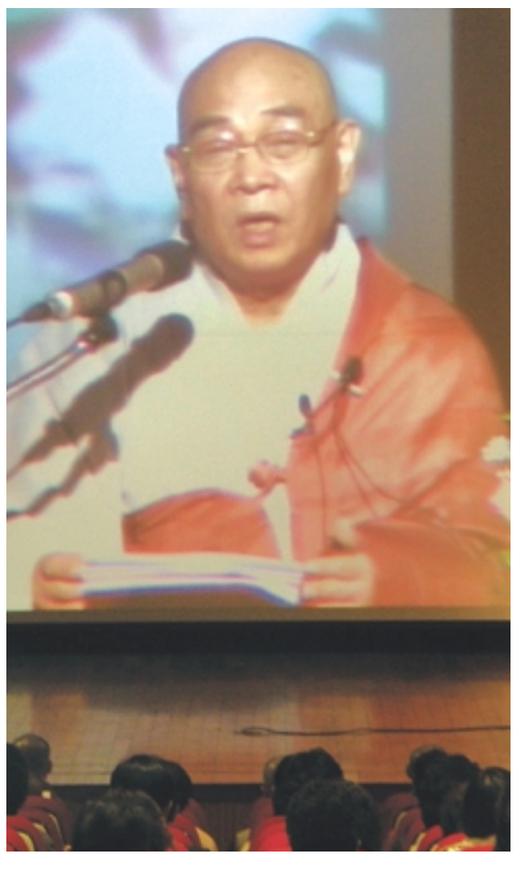
상담자의 책무를 관리하고 다루는 방안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본기법
김창대 역 | 크라운판 | 352면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빛고을불교아카데미(제1강 : 信)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 원장) / 4월 18일





“믿음 있는 사람은 몸 · 마음 즐거워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신해행증(信解行證) 중 첫 번째, 믿을 신(信)자입니다. 경전에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설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강조된 경전은 최상승의 사상을 담고 있는 <화엄경>입니다. 또한 대승기신론에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하여 기신론에서는 ‘믿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하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성취하려면 우선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직심(直心), 심심(深心), 대비심(大悲心)이다.’

믿음 성취하려면 올곧은 마음 우선돼야

첫 번째 마음이 곧을 직(直)자 직심(直心)입니다. 직심은 올곧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깊을 심(深)자 심심(深心)입니다. 아주 깊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대비심(大悲心), 대자비심(大慈悲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신이 비로소 성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직심(直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 번 품은 뜻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면 보살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어릴 적에는 꿈이 크다가 20대 이후로 점점 꿈이 작아지다가 3~40대가 되면 꿈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한번 먹은 마음이 지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信)을 성취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지속되는 마음, 올곧은 마음, 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곧은 마음이냐. 기신론에서 부연 설명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진여법(眞如法)을 바로 믿으면 그것이 직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무엇이 진여법이냐. 이게 얼른 쉽지가 않거든요. 진여법의 반대말을 이해하면 진여라는 말을 쉽게 이해합니다. ‘진여의 반대말은 다름이 아니라 망념(妄念)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망념이 없는 마음이면 올곧은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면 직심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깊은 마음 심심(深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아는 마음, 의식으로 아는 마음, 깊은 잠재의식에서 아는 마음, 근본자리에서 생각해서 아는 마음 등 이렇게 마음의 단계가 수없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마음은 눈앞에 보이는 꽃을 보고 시선에서 사라지면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의식에 담아진 마음은 봤으면 본 마음을 돌려도 꽃 모양이 있어요. 이게 의식으로 아는 마음이에요. 눈을 돌려도 의식의 마음에 꽃이 있었는데 하루밤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며칠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면 좀 더 깊은 곳에서 꽃을 본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마음을 찾아 볼려면 찾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깊은 마음을 기신론에서는 악집일체제선행(樂集一切諸善行)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선행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깊은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세상을 살면서도 성공을 하려면 한 가지 새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마음에다 무엇을 새겨놓으면 깊은 마음이 이루어지느냐. 집 어디든지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새겨놓으십시오. 이것을 써붙여 놓고 날마다 보면 처음에는 무심코 봤지만 언젠가는 하루에 한 가지 선을 실천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이 실천되는 순간 깊은 마음이 성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비심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민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마음이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듯 지속성이 없습니다. 대자비심이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일체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 마음이 사무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곳에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한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면 해결해주겠다는 간절한 심원이 싹이 터서 가득 채워지면 대비심이 됩니다. 이러한 대자비심이 자나 깨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신(信)이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을 신(信)자를 온전히 수행하는 쪽에서 설명한 것이 기신론입니다.

그러면 믿을 신자를 다시 생각해보면, 신이란 무엇인가. 불신의 반대말이 신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신이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전부가 즐겁고,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이게 계속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의심 한번 내는 과보가 좋은 환경이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병은 불신이에요.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일일일선(一日一善)’ 하는 삶 살면 성공

지금부터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긍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하면서 믿고 살면 우리 운명이 확실히 바뀔 것입니다.

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방금 전에 기신론에서 직심, 신심, 대비심을 말하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져야 할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옹졸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면 안됩니다.

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자비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라밀을 닦아야 합니다. 바라밀 중 제일 으뜸이 베푸어 주는 것, 즉 보시바라밀입니다. 이것이 자비심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중생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전부 포용하는 것, 전부 포용해서 중생을 올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확실해 지는 것을 불자의 본행(本行)이라고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근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본행이라 하는데 불자의 본행이라 하면 첫째 대비심, 둘째 바라밀, 셋째 섭화중생(攝化衆生)입니다. 본행을 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원력(願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나 꿈이 없으면 어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희망과 꿈이 없는 삶은 금수의 삶입니다.

사람답게 불자답게 살고 싶으면 원력을 세우고, 큰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기신론에서는 시간의 한정을 두지 말고 서원을 놓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 말은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안한다 이것을 두지 말고 이 세계가 없어질 때까지 서원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에 다니면 방편(方便)이라는 말이 귀에 익어요. 방편을 잘못 이해하면 임기응변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방편은 임기응변이 아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심과 지혜가 원융해지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불자라면 대비심, 본원력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내 것 다주고 자기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지죠. 대비심은 남도 도와주고 나도 이롭고 이것이 대비심입니다. 이 두 가지 이루어진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자로써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첫째 본행(本行), 둘째 본원(本願), 셋째 자비방편(悲智方便)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믿음(信)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세가지를 잘 지키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첫 번째 문, 믿음을 확실히 증장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엄경> 현수품에 나온 게송을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할 수 있고, 믿음은 환희하여 불법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며,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할 수 있고, 믿음은 반드시 여래의 단계에 이르게 할 수 있도다.

믿음은 모든 감관을 깨끗하고 밝고 예리하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으며,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뿌리를 없앨 수 있고,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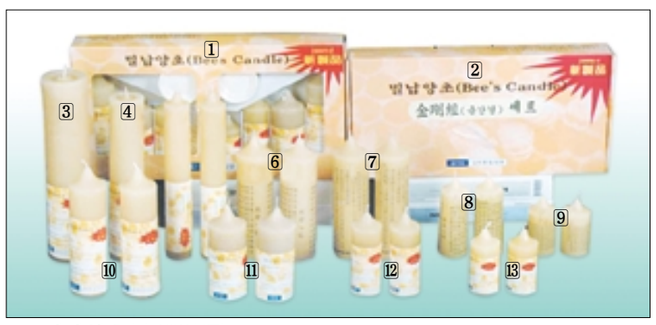
정리=조영훈(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 × 30Cm
2 돈타레 5.6φ × 27Cm
5 약쑥향 1호 5.9φ × 20Cm
6 약쑥향 3호 4.7φ × 13Cm
7 약쑥향 4호 4.7φ × 10Cm
8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월 스님(3)

제자들,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혜월 스님,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혜월 스님이 61세 때 부산 선암사 조실로 계셨는데, 몇 해를 두고 개간한 땅이 2000평이나 됐다. 이것을 욕심내는 절 밑의 속인들이 스님의 천진한 마음을 이용해 싸게 샀다.

이에 상좌스님들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스님, 그 돈은 두 마지기 값밖에 안 됩니다" 하고 원망하듯 말했다. 스님은 상좌들의 말을 무심히 듣고 난 후 이렇게 꾸짖었다.

"이 녀석들아! 논 닷 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두 마지기 값이 있으니 번 것이 아니냐? 사문은 욕심이 없어야 해!"

"스님, 하지만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허! 허!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지 않느냐."

형식에 걸림없고 집착없어
머무는 바 없는 '본원청정'
일과 수행 병행 '평생 보임'

혜월 스님의 법문을 들은 제자들은 2000평의 땅, 재물이란 상(相)에 걸려 무소유의 천진불(天眞佛)인 조실스님의 경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 선화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이다. 보시의 핵심은 미묘하게 숨겨진 소유욕과 끝없는 욕심으로부터 수행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것'이란 생각이 없어서 늘 무소유의 삶을 살아서 '무심도인'이란 별명을 들었던 혜월 스님의 면목이 대개 이러했다. 스님 개인의 사생활은 아주 검소하고 순박해서 소지품이라곤 발우 한 벌에 작은 이불 하나, 삼베옷 몇 벌 뿐이며 밤에 잘 적에는 결코 요를 까는 일이 없이 맨바닥에 잠깐 눈을 붙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진 시간 이외에는 늘 부지런히 일하고 개간했으며, 비 오는 날이면 머슴들과 한 방에서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으면서도 동중(動中)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처럼 스님은 언제나 형식에 걸림이 없고 무엇에도 집착 없이 본원청정(本源淸淨)한 마음자리에 머무는 바 없이 머물렀다. 모든 사람이 가진 청정한 자성(自性)에는 본래부터 구족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우주를 둘러싸고도 모자람이 없다. 또한 분별심을 떠난 일심(一心)은 나와 너라는 구별이 사라져 '나의 것'이라는 소유욕이 없는 텅 빈 마음이기에 송곳 꽂을 땅도, 송곳이란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자리이다. 사람의 본래 마음자리에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고 이른 뜻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스님은 법거량에 있어서도 '격식 밖(格外)'의 언어와 행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비심을 갖추었으니, 스님과 신도들 모두 진심으로 절복(折伏)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님은 본래부터 성품이 부지런했지만, 경허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뒤로는 일과 수행을 병행하며 보임(保任: 화두를 타파한 뒤 보호하고 지켜가는 佛行수행) 공부를 더욱 철저히 했다. 중국 백장(百丈) 스님의 청규(淸規)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정신으로 일관한 셈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도량을 쓸고 닦고 짚신을 삼으며 새끼를 꼬는가 하면 노는 땅, 쓸모없는 땅을 파 일구어서 좋은 논·밭으로 개간하는데 더욱 힘썼다. 당신 홀로도 일하지만 대중을 동원하여 삽, 괭이, 가래 등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산을 개간하는 일로 수행을 삼았다. 그래서 당시 삼대걸승(三大傑僧)으로 불모지를 개간하는 혜월 스님, 도량 중수를 많이 하는 만공 스님, 역경 포교에 전념하는 백용성 스님이 회자되기까지 했다.

김성우 객원기자

제대로 발심하여 망상으로 망상 다스린다

김천 인적사 매주 정진 주간 정해 수행…혜철 스님 수행 방편따라 지도점검 '효과'

"일념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망상이 쉬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에 나머지 망상은 저절로 밀려납니다. 기도 자체를 즐기며 하고 싶어 해야 싫증이 나지 않고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망상으로 망상을 치료하는 것이니 순일하게 터득하면 기도하는 마음이나 망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마음(一心)이란 것을 알기 위하여 방편으로 구분하여 찾아보는 것입니다."

4월 16일 경북 김천시 남면 부상리, 금오산 동쪽의 수려한 계곡(일명 '금오동천')에 자리 잡은 인적사(주지 혜철) 주지실. 혜철 스님과 한 신도와의 수행상담 및 점검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다. 정기법회가 열리는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온 신도들이 주지실 방문을 노크한다. 점검을 받는 신도들도 기쁘게 상담에 임하고, 주지스님 역시 한 잔의 녹차를 마시며 격식 없이 참선, 진언, 기도 등 수행 관련은 물론이요 일상의 고민까지 들어주고 해법을 제시한다.


혜철 스님(맨 왼쪽)의 법문을 경청하는 인적사 신도들.

●함께 일구고 함께 정진하는 도량

지난 해 5월 27일 개원한 인적사가 불과 10개월 만에 300여 원력불자들이 모인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은 것은 주지스님이 처음부터 수행도량을 표방하고, 신도들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호)가 절살림을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팔공산 은해사 중암암에서 혜철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이 사찰창건기금을 만들고 인적사 카페(cafe.daum.net/Injuksa)를 만들어 인터넷 신행상담을 곁들인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사의 강점은 참선, 간경, 주력, 참회 등의 전통수행을 종합해 근기와 성향에 맞게 수행하도록 한 점이다. 특히 매주 정진주간을 정해 한 수행방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한 것이 주효했다. 이를테면, 첫째 주는 다라니 주간으로 정해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수행을 20편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둘째 주는 금강경 주간으로 삼아 <금강경>을 3회 이상 독송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는 참회주간으로 108참회 절 수행을 하고, 마지막 주는 상담주간으로 정해 주말철야 참선정진으로 한 달을 회향하는 등 일상적인 수행과 점검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혜철 스님은 "기복불교가 만연해 성인(聖人)의 가르침이 숭고해서 자신도 조금이나마 배워보겠다는 간절한 자세로 절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며, "종교가 무엇이며, 왜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발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발심만 제대로 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적합한 수행을 하고, 스님에게 인터넷 점검을 받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절에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간절함과 지속성이 수행의 핵심

"종교란 더 이상 가르칠 것과 배울 것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하여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고 길잡이가 되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종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바탕위에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고 터득하여, 고정관념과 고통에 휩싸인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거죠."

스님은 수행이란 것이 그 방법보다는 간절함과 지속성, 그리고 실천에 있다고 생각한다. 늘 바깥의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성불(自性佛)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대자유인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을 신심으로 실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끄달리거나 꾸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도 마음 쓰지 않고, 온화하여 말없이 행합니다. 생명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무엇이든 평등하게 보며 늘 미소를 머금고 상대를 포근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어서 건강하고 심성이 맑아 정신적 차원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늘 행복하고 대 자유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 요즘, 인적사에는 평일에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연등을 만든다. 사찰의 주인이 따로 없어서 모두가 주인이기에, 정진과 바라밀행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된다. 그야말로 일과 수행,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흐뭇한 모습이다.

●좋은 절의 조건…정법과 화합

혜철 스님은 좋은 절을 구분하는 여섯 가지를 일러주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가? 수행이 바탕이 되는 절인가? 스님이 재물이나 명예에 연연하는가? 사회 현실의 고통을 동참해 같이 헤쳐나가는가? 공부하는 도량으로 가꾸어 신도들의 수행 생활에 불편이 없는 장소를 만드는가? 신도들 간에 편견 없이 화합하여 정법을 받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등이다.

이 기준을 참고하면 훌륭한 스승, 좋은 도량, 뛰어난 도반을 만나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진묘행(40 · 대구 봉덕동) 보살은 "정진주간에 맞춰 수행과 봉사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불심이 강해짐을 느낀다"며 "절에 오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좋은 우리 절'이라는 자랑을 절로 하게 된다"고 말한다.

절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기복화 되는 신도들,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나도 안다는 분별심만 키우고 실천할 줄은 모르는 불자들, 수행을 지도하기보다는 천도재 하라고 부추기는 사찰이 적지 않은 요즘, 금오산 아래에서 부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은 시사 하는 점이 많았다. '부처님(能仁)의 고요한 침묵(寂默)'이란 뜻을 지닌 인적사(仁寂寺)가 부처를 선발하는 선불장(選佛場)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인적사는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강경 법회를, 매월 넷째 토요일 오후 8시에 철야참선법회를 연다. (054)431-1192

김천 인적사=김성우 객원기자

수행게시판

일요 시민선방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8시 시민선방을 운영한다. 좌선, 대중울력, 발우공양, 솔숲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매월 둘째 토요일에는 삼천배, 매월 넷째 토요일 아비라기도로 특화된 주말수행이 마련된다. 매주말(넷째 주말 제외) 템플스테이도 운영. (032)937-7033

아비라 기도
해인사 백련암은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정오까지 아비라 기도를 실시. 예불대참회(108배), 법신진언(30분),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등으로 진행. (055)932-7300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서울 한국위빠사나선원은 5월 12일부터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토요강좌를 개강한다. 오후 2~5시 자율수행 및 면담, 6~9시 12연기 법문, 위빠사나 수행, 면담 등으로 진행. (02)512-5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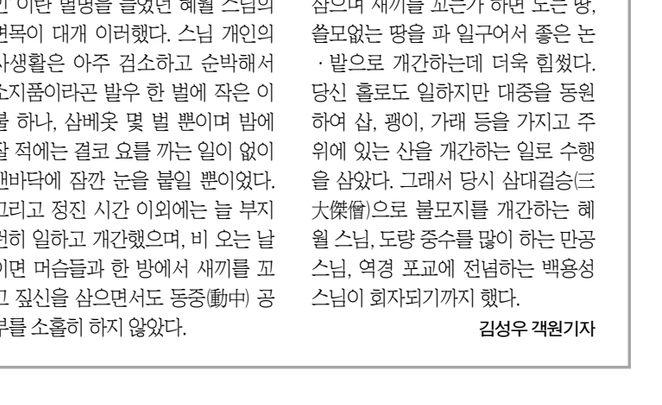
삼천배 철야정진
청견 스님은 4월 28일 오후 9시부터 제78회 법왕정사 삼천배 철야정진을 갖는다. (02)456-0035

평생부자 지갑

옴마니반메훔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 金나노 중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 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특별증정품 손목단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염주는 인도에서 염주알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소멸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할수도 있는 어려운 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어려움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자동차 금강저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빼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⑫ 자비로 미움을 녹여 준 은혜

나는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남의 자식 미워하면 그 업 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은 부드럽게 타오르는 불 같아

배다른 자식

K씨는 어릴 때 전기도 없는 산골에서 자랐다. 막내아들인 K씨는 철없이 자라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위의 형들과 누나와는 달리 자기만 아버지가 바람피워 '낳아 온 자식'이었다.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K씨는 그날로 집을 나갔다. 수치심과 원망으로 치가 떨렸다. 죽어버릴까 생각하며 밥도 못 먹고 지쳐 곯아떨어진 어느 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을 형들이나 누나와 다르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의 아들인데 내가 밉지도 않았나, 원망은 안 되었나?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궁금해졌다. 밤중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놀라지도 않고 "너는 꼭 돌아올 줄 알았다. 이야기 좀 하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은 인연

어머니는 "그래, 너는 다른 여자 아들이다. 그래도 난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악연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셨고 난 그 말씀을 절대로 믿는다"고 했다. 농사일 틈틈이 어머니가 근처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게 떠올랐다.

처음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사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의 자식을 미워하면 그 마음이 업이 되어 내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부처님 말씀이 무서웠다고 한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 예불시간에 남들이 읽는 경을 듣다가 거의 외우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경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스님의 법문도 열심히 들었다. 인과응보, 내가 만들지 않은 인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어머니는 속상할 때면 '다 내 인연이다'하고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 그렇게 K씨를 키우다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들면서 친아들과 다름없이 느껴졌다. 형들과 누나에게도 "남을 미워하면 네가 잘 못된다"하고 엄하게 하면서 절대 차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자라면서 아무 차이를 못 느꼈던 것이다.

그 날부터 K씨는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다. 도대체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머니를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나 궁금했다. 저녁이면 가끔 어머니는 K씨를 방으로 불렀다. 자신은 글을 모르니 경전을 읽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깊은 뜻은 몰라도 많은 경전들을 읽게 되었다. 고등학교 갈 무렵 어머니는 "솔직히 너희 형제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하다. 너는 대학을 가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 등록금 마련이 어려우니 네가 알아서 해 봐"라고 했다. 뜻밖이었다. 오지산골에서 대학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형들과 누나도 고교만 졸업하고는 돈 벌기 바쁜데 막내인 내가, 그것도 친아들도 아닌데.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막혀왔다. 그 때부터 K씨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마침내 어렵게 지방대학에 들어가던 날 맺힌 한을 풀듯 실컷 울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감사하라고만 하셨다.

K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정말 친어머니 이상의 슬픔으로 울었고 지금도 가슴 속에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남아있다.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사회의 누가 훌륭하다고 해도 저의 양어머니 같은 분은 아직 못 뵈었어요. 글도 모르시는 산골 보살이셨지만 부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셨으니까요." K씨는 어머니가 만일 자신을 차별하거나 미워했다면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찌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나쁜 인연은 질기기가 삼줄 같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부드럽기가 고요히 타오르는 불과 같다. 삼줄은 불을 묶을 수가 없으나, 불은 삼줄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대로 어머니는 K씨와의 악연을 자비와 사랑으로 태워 완전히 바꾸어 준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조명철 경기도 안양시

매일처럼 반복되는 새벽이지만 오늘은 제게 깨어있는 것만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귀한 걸음 하여 주시는 스님들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열 수 있는 까닭입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내일이 궁금해지면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되고, 또 과거전생이 알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선 자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열매가 되고, 또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과보가 된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듣다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 거울에 비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오척 담장에 가려진 채 세상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이 회한으로 얼어붙고 있는지, 세월이 쌓이듯 마냥 높아져만 가는 하얀 담장이 제게 체념의 삶을 알게 합니다.

어느덧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도 흰 머리카락이 언뜻언뜻 보이는 불혹의 세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발끝을 향하여 집니다.



그림: 문병성

한마음 돌이켜보면 '담장'도 감사

모든 인연에 불법 전하는 삶 발원

그렇게 죄송한 마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못난 아들에게 늙으신 어머니께서는 "명철아!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가 싫은 것이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하시며 부처님 안에서 참회하도록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죄업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당신들의 잘못이라 하시며, 당신들께서도 늙고, 병든 육신이 나마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 기증키로 하셨다며, 그렇게라도 자식이 지은 업을 나누어 지시겠다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그렇게 저의 아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새 부처님의 그윽하신 미소와 마주하며 지내온 세월이 벌써 삼년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사랑은 온 생명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봄날 담장 구석의 이름 모를 풀꽃에 달린 작은 씨눈 하나까지도 빠뜨림이 없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 알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이 머무는 자리가 아닌 제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마음자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은 한밤중인 도반들의 단잠을 깨울까, 새벽을 열며 참선하는 도반의 청정함을 깨뜨릴까, 조심조심 차가운 물로 머리를 맑히고 가만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새 아침을 마중합니다.

월명(月明)의 자리는 모락산을 향하여진 창문과 마주하고 있답니다. 월명은 제 법명입니다. 앉을 때는 이른 시간이기에 어둠만이 먹물을 뿌려놓은 듯하지만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노라면 언제 푸른 하늘이 열리었는지 모락산 기슭의 나무들이 담장 안을 굽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오랜 예부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것을 이제야 제가 마주하며 미소 짓게 됩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까르르하고 웃는 모습인 듯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잔잔한 행복이 번져오는 이 아침에 다시금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새겨봅니다. 바른 법을 구하고자 절벽에서 한걸음 더 내딛는 설산동자의 마음을 닮고자 합니다. 마주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함으로 오직 선함만을 지키고자 합니다. 향나무가 저를 상하게 하는 도끼날에조차도 향내음을 묻힌다는 말씀은 바라밀의 참뜻을 생각게 합니다.

부처님! 한 마음 돌이키니 저 두터운 담장마저도 그릇된 습을 경계해주는 감사함이 됩니다. 언젠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면 꼭 효도하겠다고 수십,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이제는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는 말과 행동이 부모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호흡한다면 이미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삶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이웃에게 행복한 미소가 되어지는 저이고자 서원합니다. 오늘 제가 내딛는 한 걸음이 얼마나 큰 행복함인지 귀한 인연을 베풀어주신 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치우침이 없는 자리에서 보이는 세상을 제게 인도해 주신 스님과 법사님들, 보살행을 베풀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의 행복을 가르치시려 자매의 연을 맺어주시고 한결같음으로 찾아주시는 귀하신 그 뜻이 이제 제 삶에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크신 그 뜻을 받들며 머무는 자리에서 부딪치는 모든 인연에 불법을 전하는 정토행자가 되고자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더불어 함께 수행하는 모든 님들이 그대로 모두가 성불하시길 두 손 모아 합장발원 올립니다. (끝)

신행게시판

사찰생태연구소 어린이생태문화교실

사찰생태연구소 어린이생태문화교실이 4월 28일 '경기의 소금강 소요산 봄꽃과 봄숲 이야기'를 진행한다.
오전 9시 의정부역내 지하철1호선 매표소 앞에서 집합해 소요산의 봄꽃과 봄숲, 자재암 사찰체험 등을 진행한다. 자재암에서 이루어지는 사찰체험은 발우공양, 다도체험, 참선체험 등이다.
초등학생 4~6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답사에 신체적 무리가 없는 어린이가 동참할 수 있다. 답사비는 2만원, 준비물은 식수, 필기도구, 개인용 돗자리, 개인컵 등이다. (02)745-5813

현덕사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

강릉 현덕사는 4월 28일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올해 초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선정된 현덕사는 요사채도 신축했다. (034)661-5878

관음사 108성지순례단

부산 관음사는 4월 30일까지 3년간 108사찰을 참배할 108성지순례단을 모집한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하며 첫 순례지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로 시작한다. 108성지순례의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될 계획이다. 108성지순례를 도울 진행요원도 모집한다. (051)294-9300

묘심선원 삼천배 정진

서울 묘심선원은 5월 12일 오전10시~오후8시 삼천배 정진을 한다. 매달 첫째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1시에는 능엄주 기도를, 매달 셋째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1시에는 아비라기도를 실시한다. (02)523-8005

구룡사 가족법회

구룡사가 매주 일요일 진행하는 가족법회, 4월 29일에는 각성 스님을 법사로 가족법회가 열린다. 오전 10시 만불보전에서 온가족이 함께 모여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가족간의 화목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다. (02)575-7766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아름다운 연꽃을 분양합니다

우리나라 **연꽃 백연, 홍연, 자완연과 흰색 어리연과, 한대연꽃 수련과 온대 연꽃 등**을 저렴한 가격에 특별 분양하오니 많은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대연꽃과 가시연꽃등 희귀연꽃은 6월부터 분양하옵고, 연꽃을 키우는 방법과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덕왕사에서 특별히 제조한 백연차와 3분용 연국수를 같이 판매합니다. (심는 적기는 6월달 이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연꽃관람은 6.7.8.9월달에 덕왕사에 오시면 약 200가지 이상 연꽃을 볼수가 있사오니 많이 관람하여 주시고 단체관람시에는 사전에 예약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포기 미만 주문시에는 택배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100포기 이상 주문시에는 특별히 현장까지 배달하여 드리고 심고 키우는 방법을 지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꽃 피는절 덕왕사 * 분양문의 *
덕인행 총무님 054)854-3855 / H · P 010-4814-9095

◆온라인 계좌번호 : 농협 707107-51-019061 / 우체국 703439-02-214685(예금주 : 유재하)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용각 합장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인천시 청소년회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 마술축제'를 5월 5일 개최한다. 청소년수련관(장수동 소재)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마술공연 전 저글링팀의 공과 링, 중국식 팽이 등을 가지고하는 각종 묘기와 저글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무료 관람. (032)440-6656

뚝섬 서울숲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 마련한 '2007 서울숲 별밤 페스티벌'이 4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24회에 걸쳐 열린다. 저녁 8시부터 공연되며 나무자전거, 노브레인, 여행스케치, 라틴밴드 카리브 등이 공연한다. (02)399-1613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는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열린다. 조경연출관, 화훼아이디어상품 전시관 등과 분재원, 허브동산, 야생화원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꽃꽂이 경진대회와 꽃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 대회, 꽃꽂이, 리본 아트, 모스토피어리, 화분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월 10일까지. 홈페이지(www.flower.or.kr) 참고.

서울시 어린이예술마당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체험전이 개최된다. 전시체험, 우리가족 수호신 만들기, 전통 타악 연주 등으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는 5월 31일까지 계속되며, 특히 4월 29일에는 한강 서래섬 축제 '아프리카 문화체험'이 펼쳐진다. (02)466-2606

양주 조명박물관에서는
조명박물관의 이번 2007년 봄 체험학습으로 '청사초롱 만들기'를 준비했다. 우리나라 전통의 멋스러움을 가득 담은 한지와 문양으로 청사초롱을 꾸며 기념품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오후 1시~2시에 진행된다. 참가비 8천원. (031)820-8002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신나는 노래 흥겨운 율동 푸짐한 상품

'어린이 찬불율동제' 현장











시계방향으로 화계사, 정혜선원팀, 축하공연에 나선 야단법석, 진관사팀, 유가심인당팀의 공연이 찬불율동제를 후끈 달궜다.

전국 16개 사찰 유치원, 초등학생 300여 명 참여

"얘들아, 연습했던 것처럼 하면 돼!"

4월 15일 서울 조계사 앞.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300여명이 열여섯 개의 소속 사찰별로 모여 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가 마련한 '어린이 찬불율동제'에 참여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았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펼쳐진 제2회 어린이 찬불율동제는 그렇게 막이 올라가고 있었다. '불교 노래'하면 왠지 조용하고 엄숙할 것만 같아 '율동'이라는 단어와 얼른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처님 노래 중에도 신나는 거 많아요!"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유치원생 민철이(7 · 정혜사)의 말마따나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이다.

율동제는 불레협 회장 송묵 스님이 미소 띤 얼굴로 단상 위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25년 동안 어린이 포교에 힘써왔다.

"어린이 여러분, 잘 왔어요. 여러분은 우리 불교의 보물입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모두 실천해 나가야 해요. 스님하고 약속합시다."

객석에서 "네~!"하고 힘찬 대답 소리가 들리고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된다.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무대 뒤에 서자 아이들은 손을 가슴에 대고 콩콩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다.

첫 번째 무대는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라는 노래로 율동을 한 조계사팀이다. 첫 순서인데도 실수없이 멋진 무대를 만들었다. 뒤이어 탑주심인당팀은 촛불을 들고 등장해 객석의 호응을 얻었다. 또 능인선원팀도 발랄한 어린숙녀들이 화려한 공연을 보여줘 환호를 받았다.

같은 시간, 공연장 밖. 전통놀이마당과 솜사탕,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는 간식마당이 특히 인기다. 점심시간이 되자 율동제에 참여했던 아이들까지 페이스페인팅을 하느라, 전통 놀이기구를 만드느라 신이 났다.

다시 공연장 안. "맑은 하늘을 닮아 갈래요~." '웃으면서 살아갈래요'를 부르며 관음포교원 어린이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었다.

화계사 어린이들이 등장할 때는 사회자조차 "의상이 독특한 팀이 나타났어요!"라며 놀랄 정도였다. 풀과 벌, 나비 의상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의 모습에 관중 모두 박수를 보냈다.

다른 어린이법회팀의 공연을 지켜보던 희경이와 영복이(10 · 봉은사 어린이법회)는 "우리는 의상부터 튄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봉은사팀은 치어리더가 되어 무대에 섰다. 동작도 딱딱 맞아 떨어졌다.

아이들 축제지만 어른들의 축하무대가 빠질 수 없다. 불교계 난타 공연 '야단법석'팀의 흔들고 치는 공연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한 시간은 다함께 즐긴 '어린이법회 지도 선생님 댄스 대회'였다. 얌전하게만 보였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무대 위에서 몸을 내던질 줄이야.

모두모두 잘 했지만 아쉽게도 누가 더 무대 위에서 실수 하지 않았고 화합이 잘 되었는지를 가리는 시간이 돌아왔다. 역시, 단합된 모습이 빛났던 봉은사 치어리더들에게 금상이 돌아갔다. 은상은 응원도 잘하고 공연도 잘한 유가심인당팀이 차지했다.

큰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이미 상의 의미는 없다. 그저 율동제가 내년에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희찬이(10 · 관음사 어린이회)는 "너무 재밌어서 매일 이렇게 율동하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라며 웃는다.

이번 율동제를 통해 아이들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 효정이(12 · 봉선사 어린이회)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해져서 좋았다"고 말한다. 또 한영이(11 · 탑주심인당)는 "연습할 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해냈다는 생각에 보람있다"면서 뿌듯해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다. 재관이(13 · 봉선사 어린이회)는 "같은 노래가 세 번이나 나와서 조금 지루해질 뻔 했다"면서 율동 노래가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상무(12 · 탑주심인당 자성학교)도 "우리가 더 신나는 노래를 통해 불교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모두 함께해서 즐거웠던 율동제. 아이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 사랑'이 한 자락 더 펼쳐지기를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바라던 순간이었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봉은사 어린이회.



유가심인당 자성학교.



화계사 어린이회.

〈찬불율동제 결과〉

금상 : 봉은사 어린이회
은상 : 유가심인당 자성학교
동상 : 화계사 어린이회
최우수상 : 진관사 어린이회
우수상 : 능인선원 어린이회
장려상 : 탑주심인당 자성학교
정혜선원 어린이회
인기상 : 정혜사 어린이회
보시상 : 조계사 초등법회
지계상 : 옥천암 어린이회
인욕상 : 관음사 어린이회
정진상 : 봉녕사 어린이회
선정상 : 관음포교원 어린이회
지혜상 : 불광사 연꽃법회
인욕상 : 봉선사 어린이회
보현상 : 보리사 어린이회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우리 주변에 있는 동 식물이 사람에 비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지조 없이 외부의 자극에 쉽게 마음을 바꾸는 인간형을 '갈대'에 비유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대나무'에 비유하지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짐승이라 할 수 있는 개의 경우도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로 욕설 등에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 물질의 특성이 하나의 상징부호가 되어 다른 경우에 비유되는 것이지요. 비유는 사물을 빨리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갈대 : 볏과의 여러해살이 풀. 습지나 물가에 나며 줄기는 곧고 단단하며 속이 비었음. 흔히 갈대는 가을의 표상으로 허무, 고독, 인생을 상징한다. 다른 풀들과는 달리 줄기가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강조되어 외유내강의 인간형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가뭇없다 : ① 눈에 띄지 아니하다. ② 간 곳을 알 수 없다. ③ 소식이 없다. ④ 흔적이 없다 ⑤ 갑자기 보이지 않아 찾을 수 없는 상태. 감쪽같다

가물치 : 몸이 둥글고 길며 등에 검푸른 무늬가 있고 배는 허연, 얕은 민물에 사는 큰 물고기.

개밥바라기 : 금성을 이르는 말.

곳집 : ① 재물이나 화물을 넣어두는 집. 고사, 창고, 창름 ② 상엿집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어쩌면 좋지? 그 목걸이는 모조품인데…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모파상作 '목걸이'

허영심이 부른 웃지못할 해프닝
짧지만 읽을수록 무게감 느껴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마틸드는 어떤 호사스런 생활이나 세련된 생활을 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용모와 행동거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범한 월급쟁이의 딸로 지참금도 없었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어느 부잣집 남자의 구애를 받아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결국 마틸드는 문교부의 한 하급 직원인 르와젤과 결혼했다. 그녀는 그런 늘 부족하기만 한 생활이 불만스럽고 무료했다.

어느 날 저녁, 문교부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받은 남편 르와젤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초대장을 보여주었으나 마틸드는 "뭘 입고 가라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남편 르와젤은 여름휴가 때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가기 위해 몰래 저축해 두었던 엽총 대금 4백 프랑을 내놓으며 옷을 사게 했다. 옷을 해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마틸드는 "장신구나 보석이 하나도 없는 걸요. 차라리 안 가는 것이 좋겠어요."라며 투정을 부렸다.

결국 마틸드의 친구인 부자 포레스티에 부인에게서 장신구를 빌리기로 했다. 마틸드는 아름답고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다.

연회가 있던 날, 아름다운 마틸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심지어는 장관의 비서까지도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행복한 밤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4시경이었다. 마틸드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다시 한 번 취해 보려고 거울 앞에 섰다가 목걸이가 어느 틈엔가 없어져 버린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옷의 주머니는 물론이고, 막 돌아온 길이며, 관저의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으나 허사였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문사에 현상 광고를 부탁하고, 마차 회사에도 가 보았다. 목걸이는 없었다. 변상하는 수밖에. 걱정과 피로로 거의 병자와 같이 된 두 사람은 파리 시내를 찾아 헤매다가 포레스티에 부인의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발견, 르와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1만8천 프랑과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3만6천 프랑이나 되는 목걸이를 사다 반환했다.

두 사람에게는 거액의 부채를 갚는 일이 남아 있었다. 식모를 내보내고 싼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마틸드는 하녀처럼 일을 해야 했으며, 르와젤은 관청에서 퇴근한 뒤에도 상점의 장부 정리 등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이들 부부가 모든 부채에서 해방되기까지는 그런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되어야 했다. 마틸드는 어느새 늙어 있었다.

어느 날 샹제리제에서 그녀는 포레스티에 부인을 만나고 그때까지의 고생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부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나! 어쩌면 좋지? 마틸드,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모조품이었어요! 기껏해야 5백 프랑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얄궂은 단편소설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종종 부딪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생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도려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배우게 되나요?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차라리 잊어버렸다고 했다면 그 당시 모조품인걸 알고 10년간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포레스티에 부인은 참 솔직한 여자인 것 같아요. 또 보물을 골라가게 하는 우정도 있는 여자죠. 남편은 어떤가요? 마틸드에 대한 애정이 많은 남편이죠. 아내의 목걸이로 그 고생을 다 감수하는 것을 보며 책임감도 있지만 착한 남편 같아요. 여자의 허영심을 경계하기 위한 이야기 외에도 우리는 다른 것을 읽어내야겠지요. 작자는 좀더 깊은 눈으로 인간을 보고 있어요. 짧은 단편소설이지만요. 선량한 남편과 여자다운 여자, 가난한 사람의 슬픔이나 부자들의 이면 등이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게 표현되고 있지요. 풍자적이고 명랑한 꽁트 같기도 하지만 다 읽고 나면 무거워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심각한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자퇴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학교가 너무 싫어요. 친구들도 무섭고 선생님과 부모님은 멋대로 나를 조정하려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ID:고딩이)

나를 스스로 돕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버겁고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등 자신의 마음상태를 알아야 변화시킬 수 있겠지요. 지금의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가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2. 본인이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누군가와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진지하게 본인의 마음 상태를 말씀드리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자퇴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지 학교라는 그 상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위험요인이 많거든요.
4. 자신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심리/성격적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왜 친구가 없는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친구들과의 사이를 가깝게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소극적이고 마음이 여려서 쉽게 상처받는 것은 아닌지 등 자신의 성격과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 혼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가까운 친구나 상담원과 자신의 마음상태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음상담연구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新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보다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생케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 입 문 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

"대한민국의 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장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중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
조립식 건축 | H-빔 제작 설치 | 이동식 주택및 팬션 | 전통한옥 철골 조공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라니 하우징만의 기술적인 만남!!!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종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실채,사랑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니하우징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 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한국의 불화 40권 완간

사찰 476곳 박물관 14곳의 3156점 담아…제작비 50억



국내 최대의 불화집이 완간됐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 스님)이 1989년부터 20년간 진행해 결실을 이룬 <한국의 불화> 전 40권이 그것이다(사진).

257x348㎜의 큰 판형에 원색 도판 형식을 도입한 이번 전집(각 권 250쪽 안팎)에는 조계종 소속 476개 사찰과 14개 박물관에 소장된 각종 불화 3156점이 실려 있다. 이는 전국 사찰과 박물관 소장 불화 중 8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록 대상 불화는 1910년 이전에 조성된 작품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950년까지 제작연대 하한을 삼았다.

특히 이번 불화집 완간은 정부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단체가 50억원 가량을 투입해 완성한 결과물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은 이 사업 발원자인 석정(石鼎 ·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스님의 선서화(禪書畵) 작품 판매와 외부 독지가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국고 지원은 2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위해 1989년 출범한 불화조사단을 통해 조사 역량을 축적한 다음, 1996년 통도사 본사편(상 · 하)과 직지사 본 · 말사(상 · 하)의 4권을 시작으로 매년 3~4권씩을 발간하다가 최근 국 · 공립박물관편과 보유권까지 보충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불화 도록을 겸한 이 전집은 유형과 예경의식 절차에 따라 작품을 후불탱(존상 뒤에 봉안한 불화) · 괘불(걸개그림) · 보살탱 · 신중탱(각종 신중 그림) · 각부탱(여러 폭으로 나뉜 작품) · 각단탱(각 단에 봉안한 불화) · 진영(초상) · 도량장엄(번류<幡類>)으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각 불화마다 원색으로 전도와 부분도를 배치하고, 그에 대한 해설과 관련 논문을 게재했으며, 해당 사찰의 약사 또한 부기했다. 각 불화 명칭과 조성연대, 조성 불사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 작품 재료와 비용을 보시한 시주자도 밝혀 놓아 한국불교미술사 연구에도 큰 사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진리를 말하고 싶으면 '법화경'을 펼쳐라

혜경 스님 '법화삼부경강설' 전 10권중 1 · 2권 간행

<법화경>과 소크라테스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플라톤이나 아인슈타인 혹은 일본의 과학자 유가와 히데끼 와는?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동서양의 석학들의 이론이 <법화경> 강의에 동원된다면 그 강의의 스케일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법화경>에도, 여러 석학들의 이론에도, 각 분야의 인문학사에도 남다른 눈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50여 년 간 <법화경>을 연구해 온 혜경스님(무설정사 회주)이 '우주적 강의'를 담은 <법화삼부경강설> 총 10권의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각 권당 500여 쪽 분량으로 기획된 이 강설집의 1권과 2권이 먼저 세상에 나왔다.

'무량의경'의 내용을 담은 제1권은 서설에서부터 장중한 교향악을 듣는 듯하다. 초기불교에서부터 <법화경>이 설해지고 성립되는 과정과 전개과정 등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 풀어내면서 강의가 시작되는 것. <법화경>과 관련된 한국불교의 발전과정, 일본에서의 <법화경>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혜경 스님



법화삼부경강설 1 · 2권

<법화삼부경강설> 1권과 2권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한 한문경전을 먼저 수록하고 안진호 스님의 '구역법화삼부경' 번역부분을 실었다. 그 뒤를 이어 혜경 스님의 '신역'과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전과 근대 석학의 해석 그리고 현대 언어 질서와 정서에 맞춘 혜경 스님의 해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셈이다.

혜경 스님은 <법화경>을 "우주 실상을 제대로 밝힌 경전, 제법실상의 진리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자타일체감을 체득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경전이다"고 소개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진제 스님 상당법어 비디오 · CD로 만나세요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의 법어를 담은 비디오 테잎과 CD 등이 나왔다.

진제 스님이 최근 설한 안거 결제 법어와 각종 초청법회 법어를 담은 비디오 테잎 5편과 '혜월 선사 진제 선사의 오도와 전법' '운봉선사의 오도와 전법' '향곡선사의 오도와 전법' '경허 선사의 오도와 선법선양' 등 카세트 테잎, '진제선사 불교 TV 초청대법회' 실황 오디오 CD 등이 불교TV에 의해 제작돼 보급되고 있다. (051)746-4812

임연태 기자

"음악공양도 수행입니다"

우학 스님 찬불가집 펴내



포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신행 이야기 등을 책으로 내 화제를 모았던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관음사 학장)이 이번에는 '음악책'을 냈다. 우학 스님이 쓴 시들이 아름답고 장중한 음악으로 만들어져 한 권의 찬불가집이 '음악공양'이 된 것.

혼성4부나 여성 3부 등에 맞춰 지어진 일반 찬불가 30여 곡과 찬불동요40여 곡 어린이합창곡 6편이 실렸다. 작곡은 관음사 신도인 영법향 씨가 맡았다.

우학 스님은 책을 내며 "음악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복을 짓고 업장을 참회하는 불교 본래의 수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서출판 참좋은 인연. 1만원.

임연태 기자

우리민족의 고대사 바로보기

심백강 박사, 한사군 지역 답사 기록



황하에서 한라까지
심백강 지음
참좋은세상
1만3000원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역사학자이자 동양학의 대가인 심백강 박사가 <황하에서 한라까지>에서 우리 민족은 조그만 한반도 땅이 아닌 광활한 중국대륙이었다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사고전서>등의 다양한 중국사료와 수십번에 걸친 중국 현지 답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심 박사는 "무엇보다 큰 성과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분수령인 한사군의 낙랑군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평양의 대동강 유역이 아닌 요서의 대능하유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반도사관의 틀을 깨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움직이는 것은 네 마음이다"

김영욱 박사가 푸는 화두의 세계



화두를 만나다
김영욱 지음
프로네시스 | 9000원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오프닝이었던 이 알 듯 말 듯한 내레이션은 사실 <육조단경>에서 혜능 선사가 던진 화두다. '화두'란 불교용어로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참선하는 수행자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는 부처나 조사의 파격적인 문답 또는 언행을 일컫는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야기의 첫머리'나 '문제의 실마리' 등의 뜻으로 두루 쓰이기도 하고 영화나 문학 등에서 '문제 제기'나 '환기' 역할로 종종 등장해 그다지 낯설지만은 않다. 하지만 화두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 책에는 선의 세계를 대표하는 100여 개의 공안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그저 역사 속 일화들을 나열해놓기만 한 이야기 모음이 아니다. 저자는 '간화선'이라는 선의 특별한 족보속에서 선사상을 탐색하면서 백척간두에 선 것과 같은 화두를 만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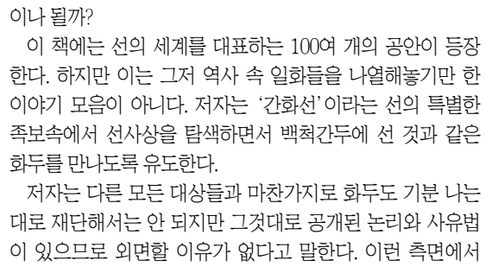
저자는 다른 모든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화두도 기분 나는 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대로 공개된 논리와 사유법이 있으므로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단지 화두(공안)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학인들의 화두에 대한 재해석과 선사들의 게송도 곁들여 풀이해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
7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8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9	곰게 늙는 절집	심인보	지안
10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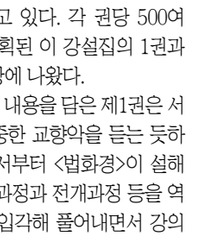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우리 시대의 큰 스님 활산성수 대선사와 활안 대선사 선법문집

너희는 절에 뭐하러 가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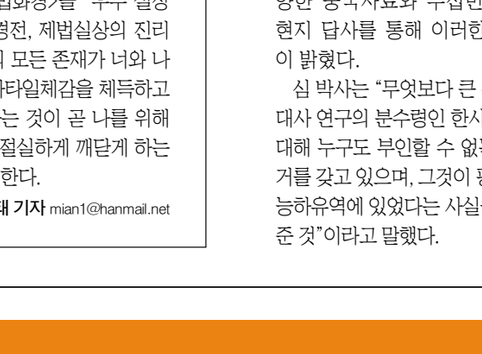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언제나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법문집을 내지 않기로 유명한 활안 큰스님이 최초로 발간을 허락해주신 책. 대중의 무지를 깨우치는 활안 큰스님의 벽력같은 일갈!

활안 대선사 법문 | 김성우 엮음 | 양장 | 값 13,500원



저 건너 산을 보라



"불법은 저 건너 산을 보라. 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 오면 낙엽지네. 이 밖에 따로 구하지 마라. 구한 즉 고(苦)가 되나니라."

난해한 선(禪)이 아니라 일상에 뿌리내린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을 확립한 것으로 유명한 성수 큰스님의 촌철살인 명법문집.

활산성수 대선사 법문 | 김성우 해설 | 양장 | 값 15,000원

Human & Books Tel. 02-6327-3535 | Fax. 02-6327-5353 | E-mail. hbooks@empal.com

마음 촉촉히 적시는 '백자세계'



군포교 기금 마련 위해 1백여점 전시

"도자기는 생명입니다. 흙의 감미로운 질감에 빠져 생명을 만들고 그 결실을 판매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저에게는 수행이지요. 현대인들은 화려한 법당에서 부처를 찾고 번듯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만 보지 말고 세상을 거울삼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눈물, 고통, 즐거움 등 희로애락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얼굴입니다."

설봉 스님(강화도 무애원 주지)이 전시회를 갖는다.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인사동 고미술협회 전시장에서다. 이번에도 목적은 해병대 포교기금 마련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갯벌흙, 논흙, 마사토, 황토, 소나무재, 쑥재 등을 원료로 스님이 개발한 유약을 사용한 도자기 1백여점이 선보인다. 스님이 오랜 인고와 연구끝에 개발한 천연유약을 사용한 도자기들은 명주 옥양목 삼베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색깔로 만들어져 마음에 촉촉히 젖어드는 한없이 포근한 백자의 세계를 열고 있다.

설봉 스님의 도자기 작업은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8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전시회만 50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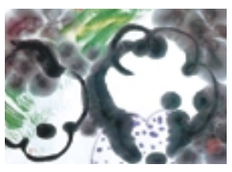
스님은 한결같이 전통 가마를 고집한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자화(도자기자체내의 익는 정도)를 확실하게 해 주는 커다란 장점이 있어서다. 그래서 전통가마에서 구워내는 도자기는 내구성이 강하고 유약이 골고루 배어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다.

"고통스러운 곳, 외로운 곳을 찾아가 몰래 도와주려면 도자기를 계속 구워야 합니다. 또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한끼 식사라도 제공하려면 부지런히 도자기를 만들어야죠. 도예의 꽃은 '유약'인데, 국내 도예가들은 유약개발을 등한시하고 일본 유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적불명인 도자기가 양산되는 겁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해탈 등 5가지 주제 구성

홍석창 홍익대 명예교수 개인전



홍석창 홍익대 명예교수가 최근 선보이는 전시작들을 보면 불교냄새가 물씬 난다. 수묵과 채색, 구상과 추상, 전통과 현대, 형상과 비형상을 자유롭게 대비시키며 정중동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4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갤러리 호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홍 교수는 '해체종합론'을 보여준다.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그린 55점을 선보인 전시장에는 100~300호 크기의 대작들이 길이 22m, 높이 5m인 갤러리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전시작은 '해탈(解脫)'(사진) '열반(涅槃)' '삼취(三醉)' '난무(亂舞)' '무념무상(無念無想)' 등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된다. 모두 한지 그림이지만 동양화도 아니고 서양화도 아니다.

특히 홍 교수는 '열반' 등 대작 시리즈에서 동양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운생동, 즉 운필(運筆)의 역동성을 아낌없이 과시한다. 이 작품들 앞에 서면 작가가 붓과 화면을 일치해가며 화선 삼매에 든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⑩



그림: 이상배 화백

수락산 내원암

장인성 시인

수락산 드는 길에 암자 한 채 서있다
이백이십 돌계단 오르는 길이
하늘에 이어진 듯 까마득하다

절집은 왜
깊은 산중에 터를 잡을까

턱을 괴고 물끄러미 한참을 생각하다
어렴풋 풍경소리 들은 것일까
몸뚱이가 절집처럼 고요해진다.

내원암(內院庵)-남양주쪽 수락산에 자리한 비구니선원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 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대현 스님」 길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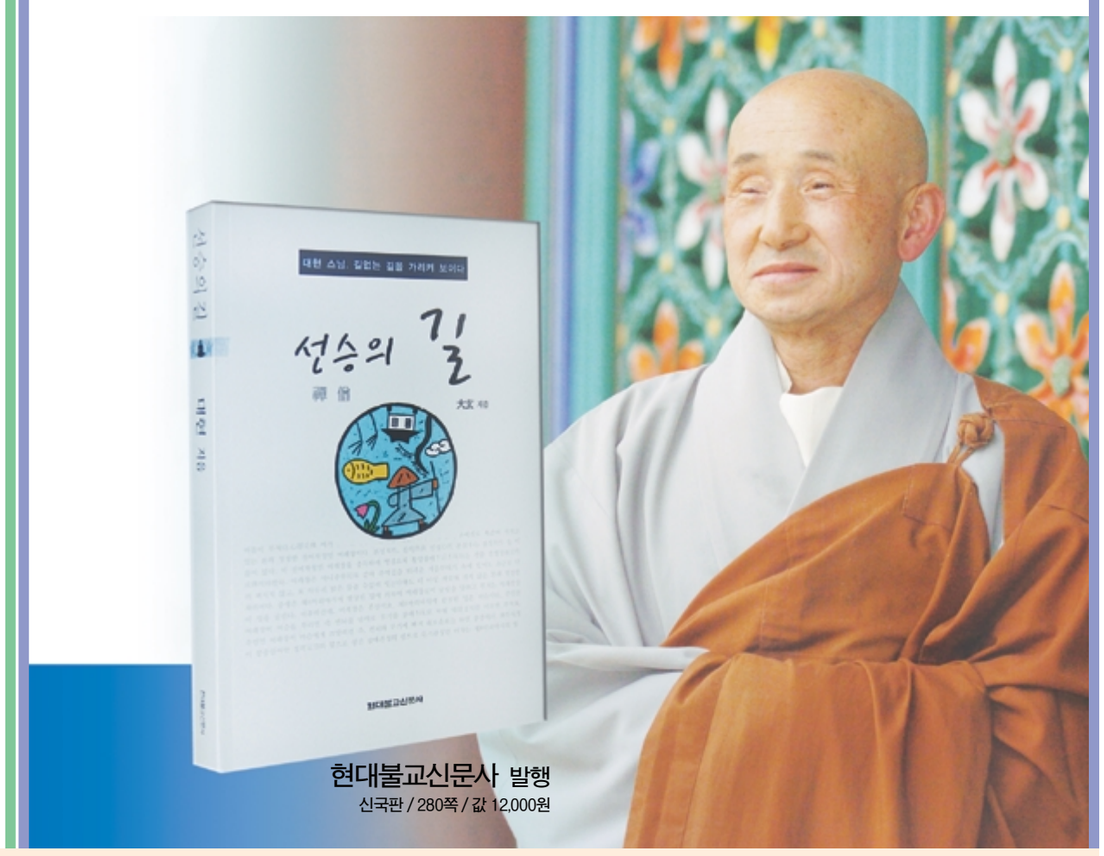
선승禪僧의 길

화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는 연인 같다면
누가 참선수행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길 없는 길!

중생은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에 의해 여래장심이 굴림을 당하고, 부처는 여래장심으로 업을 굴린다. 비유하자면 여래장은 주인이요,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은 머슴이다.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을 부려서 번뇌를 반야로, 무기를 불매不昧로 바꾸어 대원경지를 이루면 부처요,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에게 끄달려서 번뇌와 무기에 빠져 육도윤회를 하면 중생이다.

— 본문 중에서

無等大玄 스님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신 스님은,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셨다.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가파르고 힘든 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하며 위빠사나와 염불주력 수행의 도움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신다. 서울 우이동 보광사 보광선원 선원장이시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

업장은 짧고 과보는 길다


경복궁 정문 흥례문. 1404년(태종5년) 9월에 경복궁이 준공되어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3대 태종 헌릉(2)

왕권 강화 절대가치로 규정, 도전하는 세력 무참히 처단
만행 극에 달한 양녕은 태종 18년에 폐세자되어 유배
충녕대군 세자 책봉 두 달만에 '왕좌' 성군 세종시대 개막

"아바마마, 아바마마! 태상왕 전하!"

태종의 흐느낌이 침전 밖까지 들린다. 강철 덫에 발목 걸린 맹수처럼 깊고 처절한 울음이다. 내관들은 파랗게 질린 낯빛으로 안절부절못한다. 철벽같은 장애를 두려움 없이 까부시고 권좌에 올라 여기까지 왔는데, 숱한 저주의 아우성마저 환호로 여기며 예까지 왔는데, 내일은 또 어떤 보고가 올라올까. 밤이 이슥토록 용포도 벗지 못하고 앉아 주먹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다.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만든 핏물이 몸을 잠그고도 넘치거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 이승에 없는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어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뼈 속에 스민다.

세자 양녕의 기행(奇行)은 날이 갈수록 더하다. 기행의 도를 너머 만행(蠻行)이다. 아비의 속은 숯검정이 되어간다. 태조의 가슴에 박았던 대못이 자신의 가슴에 쇠말뚝이 되어 박힌다.

"전하, 세자 저하가 몰래 궁을 나가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가 저자의 기생집에 머무르고 있다하옵니다. 그 기생은 상왕(정종)전하께오서 아끼는 기생이라 하옵니다."

보고가 두렵다. 여염의 난봉꾼을 능가하는 행태가 연일 보고된다. 세자는 민가의 사내들조차 엄두를 못 낼 야만을 연일 저지르고 다닌다. 권력을 위해 아비에게 무자비했던 업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태종은 왕권강화를 절대가치로 규정했다. 신흥 왕조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처단했다. 태종 5년(1404) 11세의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적통 장자의 왕권 계승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자신도 건강한 38세니 제왕 수련에 자신이 있었다. 그 의도를 거스르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았다.

외척 세력이 발호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았다. 정비 원경왕후의 4명의 남동생(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마저 처형했다. 양녕은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냈다. 자연스럽게 외삼촌인 그들과 친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세자의 위세를 은근히 업고 조정의 실세로 행세했다. 그들을 차례로 유배 보내고 자진(自盡)토록 했다. 끝없는 피의 향연이다.

10여년 이상 제왕 수업에 공을 들였지만 세자의 싹수는 갈수록 노랗다. 청년이 되어 색정에 눈을 뜨자 본격적으로 호색한이 되어간다. 세자에겐 궁궐이 구중심처가 아니라 신출귀몰의 놀이터다. 근신하라는 어명을 코웃음 치며 날려버린다. 수색대를 풀어 세자를 궁으로 잡아들여 놓으면 대궐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다.

난봉질도 주로 친인척의 애첩을 건드린다. 임금으로서, 아비로서 태종의 체면이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피범벅이 된 손으로 꼿꼿이 세우고자한 왕권이 세자의 일탈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급기야 세자는 아버지 태종에게 포복절도할 편지마저 보낸다.

"원기왕성하신 전하! 아바마마께서는 어찌 그리 정력이 세십니까? 스물여덟에 소자를 낳으신 후 매년 한둘씩 아들딸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어마마마를 포함해 부인이 열 명이옵니다. 아직도 더 늘려갈 계획이지요? 소자는 자랑스러운 아바마마의 자식입니다. 소자 또한 열 이상의 애첩을 거느리고 싶습니다. 소자의 이런 생각을 어찌 나무라려 하옵니까. 전하께서는 후궁 여럿을 거느려도 되고 소자는 기생첩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해괴한 법도이옵니까. 소자 또한 전하의 자식답게 정력이 왕성합니다. 소자의 용맹을 탓하지 마시고 격려해주십시오."

실록에 기록된 편지의 핵심은 위와 같다. 한때 유행했던 '막가자는 거지요'였다. 차라리 뜯어보지 말고 불태워버릴 것을. 편지를 읽은 태종은 온몸을 떨었다. 태산도 옮기고 천군만마도 두렵지 않았거늘 20대 청년 양녕이 무섭고 두렵다. 자신이 휘두른 칼날에 사라져간 이들의 원귀가 양녕의 몸속에 온통 엉겨 붙어 있는 것 같다. 이승을 떠난 태조 이성계가 비웃는 것 같다.

용포를 찢으며 마취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비틀거리며 방안을 휘젓고 다닌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내관마저 호통을 쳐서 내쫓는다. 폐세자를 주장하는 상소가 이미 산더미처럼 쌓였다. 적장자 왕통 계승의 꿈이 서서히 허물어져간다.

마침내 태종 18년(1418) 양녕대군은 폐세자가 된다. 그의 나이 25세, 세자가 된 지 15년만이다. 1418년은 태종 재위 마지막 해다. 마지막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태종의 고민이 보인다. 양녕은 태종의 날선 가슴의 칼을 무디게 한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양녕이 아니었다면 태종은 이승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폐세자 양녕은 유배되었다. 동생 충녕(세종)이 왕이 된 후에도 감찰 대상이었다. 유배지를 벗어나 함부로 돌아다니고 난잡한 행태를 멈추지 않아 대신들의 탄핵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형님에 대한 극진한 우애와 예우를 견지했다. 수십 차례 올라온 탄핵 상소를 끝내 거부했다. 양녕대군은 노년에 세조 편에 서서 세종의 장손인 단종을 내쫓는데 앞장섰다. 묘하고 드라마틱한 위인이다. 그는 천수를 누려 1462년(세조 8년) 69세를 일기로 죽었다.

태종은 건강한 상태인 52세에 전격적으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양녕을 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은 지 두 달만이다. 태종다운 과감함이다.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도 군권에는 관여했다. 태종은 1422년 56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결에 누운 정비 원경왕후 민씨와는 4남4녀를 생산했지만 그리 화목하지는 못했다. 사가에서라면 8남매를 낳은 다복한 부부다. 남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녀는 총명하고 결단력 있는 내조자였다.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데 일조했고 방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능력을 발휘했다.

왕비가 된 후에는 태종과 불화가 그치지 않았다. 태종의 후궁이 많은 것은 권력 분산과 왕권 강화를 위한 책략이었다. 민씨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투기했다. 폐비의 위기까지 이르렀으나 태종은 후일을 걱정하여 끝내 폐비시키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가 훨씬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 정이야 싸늘하게 식었지만 원경왕후는 태종 곁에 누워 있다. 합장릉이 아닌 쌍릉인 것만도 다행으로 여길까. 두 개의 능은 1미터 정도 간격으로 바싹 붙어 있다. 굵직한 지대석이 두 개 능을 이어주고 있다. 지금 이들은 돌아누워 있을까. 마주 보고 있을까.

양녕에게 혼쭐이 난 태종에겐 불세출의 현군이라 칭송되는 또 다른 아들, 세종이 있다. 과연 세종은 미덕으로만 뭉쳐진 위인일까. 그가 묻힌 영릉으로 간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헌릉의 능침.


헌릉의 신도비.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육 효 기 문 사 주

사주(일진법)	5월29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5월30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5월31일(목)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6월 1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 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 강의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빙의 현상, 신끼, 무병, 정신질환, 두통, 알콜중독, 만성질환등
재물을 차린지 않고 초능력의 힘 기(氣)로써 빙의된 조상이나 태아, 타인영가, 잡귀신등 몸이 고달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고 치료함
특별한 능력을 갖춘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55)261-1230
011-586-6091

역 학 강 의
명리 · 육효
적천수천미
한 문 원 서
051)523-8425
010-3667-8425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秘 法 전 수
뭇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희)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체형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모십니다
· 공양주보살
· 찻집보살
· 종무원(남 · 여불문)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참신한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256-3483

종 무 원
구합니다
(PC와 숙식가능한)
▷40세(여) 이하
011-415-5558

부전(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591-8228
042) 271-62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공기 맑고 아늑한 도량
▷강화도 지역
011-9554-3568
010-2240-3568

명산에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신체건강하신 분)
011-696-8500

부전스님
종무보살,화주보살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숙박가능자. 양산
011-574-3303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교의식 및 서화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불사도우며, 안거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사무원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도 혜양사)
055)633-2178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일시적으로 천도의식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저렴한 보시에
여법하게 봉사함
(세납 60세, 법납 30년된 비구)
011-9429-5789

조용한 산사에서
천일 기도하실
스님 · 행자스님 ·
처사님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봉천동
02)889-2456

비구스님
모십니다
011-9035-1511

지리산 암자에서
공양주를 모십니다
▷60세 전후
011-614-1763

부전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지역사찰
010-7113-8166

공양주보살님
행자님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기도스님
(비구니)
모십니다
▷청주
011-459-3282

부전스님
모십니다
(40세미만 비구스님)
010-5500-1836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9491-922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32)679-34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전남 구례 화엄사
011-639-9662

가족같이 지낼
비구니스님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의정부
016-266-4874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꾸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지도는 승려에 한함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전통무용)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051)557-1130 / 011-482-209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일정 :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칭짱열차)
◆일정 : 부산-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2)-부산
◆출발 : 매주 월,목요일
◆경비 :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일정 : 인천-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1)-인천
◆출발 : 매주 수요일
◆경비 :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항주 8일
◆일정 : 인천-상해-수주-항주(1)-구화산(1)-황산(2)-항주(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일정 :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월, 수, 토요일
◆경비 : 649,000원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 안 동 :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 055)741-9999, 팩스 742-4444

2007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신(편)입생 모집
새벽종성,조석예불,사시불공,각단불공,천도재,49재,사물(태징,북, 목탁,요령)다루는법,구명시식,점안의식등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불교의식을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스님, 포교사, 재가불자, 장차 출가를 계획하고 계신분등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좋은인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접수마감:2007년 4월 30일 까지**(전화접수 가능)
▣**원주교육장** - 개강:5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학 과	수 업 일	기 간
기 초 반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15명선착순)	6개월
범 패 반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시 (10명선착순)	1년
재의식반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6시 (10명선착순)	1년

▣**춘천교육장** - 개강: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학 과	수 업 일	기 간
기 초 반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15명선착순)	6개월
범 패 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 (10명선착순)	1년
재의식반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6시 (10명선착순)	1년

교 육 내 용
◎**기초반** :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각단불공 (강사:원각스님)
◎**범패반** : 종성. 거불. 헌좌게. 가영. 신중창불. 인성이. 복청게. 향수나열. 안채비. 겉채비 (강사:도담스님)
◎**재의식반** : 천도재.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강사:도담스님)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도량게. 다게. 운심게 (강사:자인스님)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바라 1벌. 태징**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원주교육장〉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원주시청옆) ☎033)731-7759
〈춘천교육장〉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춘천경찰서옆) ☎011-269-4168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행자(예비스님)모집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9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onlymaum@buddhapia.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마산지역
● 법당 : 30평.명부전 : 200평
● 요사 : 12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
● 사정상 최저 급매 가격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부산
● 법당 · 요사 : 15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5억 (즉시법회가능)
● 위치 : 인천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임대가액 : 3,000/25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부지안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 내용 : 사찰, 팬션, 별장 주택 등 다용도 가능한 관리지역 1,650평
● 전기,도로,계곡접하고 토목공사완료된 토지
● 가액 : 인연되는분과 절충하여 결정
011-570-1317

포교원안내
● 위치:경기도 안성시 시내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2층 20평
● 법당10평,방2개,주방 및 화장실 옥상20평
● 사용가액: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답사후결정
● 특징:시외및고속버스터널앞 최고위치
● 스님,법사님,보살님 즉시법회가능
017-297-4097
043)211-05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접면
● 대지600평, 법당25평(단청), 요사채30평, 20평
● 가액 : 4억 2천만원 (융자 1억5천 유)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583-2035

포교당안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가액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사찰안내
● 위치:김천 ● 부지:1,000평 ● 법당:12평 ● 요사:20평 ● 가액:1억2천
● 위치:경기도 ● 부지:삼천평 ● 법당:30평 ● 요사:46평 ● 가액: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33-01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구미시
● 대지: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 요사채 에어컨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 하천부지사용, 주차장 완비
● 가액:2억 5천만원
016-818-3088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법당 : 조립식 15평, 요사1동, 사무실1
● 보증금 없이 연240만원 가액없음, 설비일체 3천만원
● 특징 : 역학 보유자 최적지
010-7156-485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외동
● 평수 47평
● 기타시설 완비
● 가액:전세 2500만원 월 65만원,시설비 2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5)324-1865
011-582-1865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삼랑진역전 10분 거리
● 총평수 : 3만 3천평
● 종교용지 1530평 + 밭 550평
● 120년 역사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정남향 토목공사 완료
● 좌청룡, 우백호, 주변경관최고
● 양도가 : 4억원
- 목조사찰 -
● 부지 : 1000평
● 건물 : 목조법당 25평(5포7포)
● 요사채 : 목조+판넬 20평+20평
● 위치 : 부산바닷가 영도, 창원, 의령, 밀양, 순천 다량확보
● 가액 : 2억~7억
● 정남향 양지바른곳 바다전망이 좋은 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부터 2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전체평수 4390평
● 대지:종교시설부지2000평 허가진행중, 사찰건립계획도 있음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화장실 10평 겸에 주택계획도 있음
● 현재토목설계 1차 500평 허가 득, 2007년 3월 2차 500평 허가예정(현재진행중)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주목군락형성
● 주택1동, 창고1동, 촌집(산입구 오른쪽에 있음) 전원주택(텃밭가능) 목조기와,주거가능 -별도거래
대지 약100평, 건평 약15평, 창고 약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 지하수(청정1급수)
청정한 수행자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 후 점지된 땅 ● 가액 : 3억 조정가능
011-741-3415, 010-6283-97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600평, 밭 350평
1층 요사채 30평
2층 법당 30평(단청 완벽)
● 삼성각 25평, 요사채 27.5평 조립식 20평, 시설완벽
● 석탑, 석불(미륵존불 2분)
● 가액 6억원
016-204-1668

포교원(암자) 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 대지 약200평, 법당 20평 1동(삼존불)
● 건평 : 요사채 60평(적벽돌 스라브) 1동
● 가액 : 2억1천만원 (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010-5883-5005
011-9877-7913

포교당 및 철학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삼존불, 탱화, 신중, 산신, 영단완비
● 전세 3000만원, 월1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1-857-660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233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서울 최고의 통일불지(佛地)
● 현세의 김대성 같이 석굴암 조성 가능
● 은평뉴타운 대로변 임야 1만 2천평
● 매도 및 동업투자할 분 항시상담
●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010-9468-81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금정마을 인법당 주차공간
● 대지 62평, 건물 32평 (법당 올 수리), 법당 28평, 산신당 2평(산신, 용왕, 칠성)
● 주지실방 4평, 친견실방 4평, 小실 2칸, 입구방 5평 판넬 (다락 5평 서실 겸 침실),공양간 25평(천막)
● 법당 : 삼존(금불) 아미타3.7, 관음3.5,대세지3.5 (관음호신불 100분) 지장단 : 지장금불2.5, 지장호신불 80분
● 가액 : 1억4천(융자 6500별도). 꼭 사실분만 전화요망
011-842-6123(주지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370평,건평 30평
● 신축1동, 구옥 1동
● 국도 인접, 개울물 흐름
● 가액 : 1억3천만원
010-2880-9856
054)873-864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현대식 건물
● 부지 100평 건물 180평
● 가액 : 9억5천
※관심있는 분 전화문의바람
011-860-1228

불교용품매장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 송우리 중간지점
● 평수 : 20평, 보증금 1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매장용품가 6000만원
● 운영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으나 급한사정의 미국출국으로 인연 있는분께 양도하고자합니다
016-721-8679

도심포교당 안내
● 위치: 시흥시 정왕동
● 약 20평
●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지로 최적
● 가액 1억원(시설비 포함) (융자 2천만원포함)
031)958-3827
010-2546-3363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 거제 신도시 바닷가(뒤 산세좋음)
● 대지 : 약 1,400평(얼마든지 큰도량을 만들 수 있는 사찰입니다)
● 건물 : · 대웅보전 약 50평(목조단청완료)
· 내부공간 1, 2층 약 100평(단청완료 기와)
· 약사전 1, 2층 약 100평(단청완료)
· 요사채, 승방, 창고 약60평(단청완료)
● 가액 : 25억2천만원
● 특징 : 신도가 많은 사찰이며, 멋진 관광사찰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현재 스님 건강이 좋지않아 원력이 좋은 스님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1-9327-793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31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1290평
● 건물(3동) 53평, 25평, 17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010-6317-2741

암자 하실분 명당터 안내
●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IC옆
●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에는 월봉산과 달맞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명당터
● 대지:205평, 300평, 456평 건물:40평, 25평
● 7000만원 가격 협의
043)732-8285
010-3545-9992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가 1억4천5백만원)
연락처 011-820-4617

산속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산사
● 내 절처럼 관리하고, 부처님 전법을 수행하며 사실 스님을 찾습니다
● 대웅전1동, 산신각1동 용용전1동, 요사채2동, 방7칸
● 전세 : 1억 돈이 부족하신분께 월세 가능
033)661-9992
011-422-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대전에서 20분거리)
● 대지 200평
● 건물:신축법당 20평 (삼존불,108나한 봉안) 요사채 2동(구옥)
● 가액: 1억 4천만원
※ 급한 사정으로 제가 양도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부동산 사절)
011-486-127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평수: 3층 25평
● 삼존불 봉안, 각 탱화 봉안
● 보증금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즉시 법회 가능(시설일체완비)
018-315-0108

사찰적지안내
● 위치: 경북 의성읍 읍을끼고 교통편리 아주 적지임
● 총 460평, 건물60평있음
● 평당 1백만원
● 현재 휴게소로 사용중
054)832-6300
016-832-943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서면
● 대지 약100평,일반주택사찰
● 법당 : 칠성, 용왕, 산신, 불상탱화 완비
● 요사채 방2, 집기일체 양도
● 가액 7천5백만원
011-511-0442
054)751-8212

포교당안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2000만원 가격절충가능
031)405-4181
010-6321-1639

사 찰 안 내
● 위치: 익산
● 강경-차로 15분, 함열-차로 5분 거리
● 법당 20평, 요사 30평, 화장실 1평, 대지 150평
● 가액 : 8천5백만원
● 현대식 적벽돌 앞나무 수령 500년 넘은 도량 현 시세보다 이하
011-811-5466

어렵게 시작하는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1층 20평 법당 1개 방2개 살림가능
● 산신탱화 문화재인작품 5×10자 고급 쌍호신 산신님 5자 단청고급,법단 원목9자
● 총 인수가:8백5십만원 보증금: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350만원 역학,철학,보시는분 현재운영중
010-6411-2882
(일요일 답사)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바닷가 3분거리
● 대지 74평, 건평 약20평,
● 삼존불, 지장보살 지장보살, 소불 108불 봉안
● 주차시설 완비, 寺家
● 시설비 집기일체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됨
033)661-2915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 만불산 근처 산세수려
● 대지 264평(임법당30평, 산신각 3평,요사채40평) 황토방1개, 목욕탕2개
● 가액: 7천만원
● 주차장완비
016-503-30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656-27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 근교, 서포항 IC 5분거리
● 대지: 약 1천평
● 법당15평,산신각,용왕각
● 요사채 75평 중 50평 심야보일러
● 답사후 결정
016-536-8774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직면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이런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방면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친견실
● 가액 : 3억5천만원 (사찰확인 후 절충가능)
011-863-0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구미최고요지
● 약 40평
● 법당, 삼존불, 방2(거실겸 주방)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합계 1천만원
019-599-0017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 점양동 호숫가
● 대지 50평, 건평 약45평
● 2층 법당, 1층 요사(시설완비) 주차장 완비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041)549-9511
010-3915-80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전체 7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35평
● 별장용(명당),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적당한 곳 관상용 양어장 있음
● 가액:2억원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법당(35.10평방미터)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요사채(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밑 남원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2,000평
● 대웅전 20평, 별채 20평,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조립식) 50평, 심야전기보일러
● 특징 : 송림이 울창하고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음
● 가액 : 2억 5천만원
063)625-9992
011-411-0503

사찰 명당터 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 대지 : 540평
● 건물 : 조립식 인법당 약50평 (법당1, 입식1, 방4, 기름 · 화목, 보일러 겸용)
● 계곡 : 육송, 소나무 숲. 자연식조경,산신각, 대웅전, 종각, 3층 자연석탑, 연못2(조경완성)
● 가액 : 9천7백만원(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요망
011-640-1494

암자(포교원)안내
● 위치:밀양 무안 국도변 위치
● 대지 : 약200평, 법당 20평 1동
● 건평 : 요사채 60평 (적조 슬라브) 1동
● 태양열, 단독 지하수 완비 사찰 살림 가구 일절
● 가액 : 2억 1천만원 (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055)356-6777
010-5883-5005

사찰음식으로 준비한 봄나들이

꽃구경, 사람구경 하는 봄나들이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는 재미'다. 조미료가 잔뜩 든 음식이나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이 먹어야 하는 식당 음식이 싫다면 조금 번거롭지만 도시락을 싸 보자. 한입씩 먹기 좋은 쌈밥이나 주먹밥도 좋고 소스와 밥을 따로 싸가서 먹기 전에 비벼 먹는 한 그릇 음식도 좋다.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냉이, 달래 등의 봄나물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 봄나들이의 맛과 멋을 도시락에 담아보자.

봄나들이 맛과 멋 도시락 안에 있네



▷ 취나물쌈밥

재료 : 취, 멥쌀, 간장, 깨소금, 소금, 참기름

① 깨끗이 씻은 취를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낸다.
② 데친 취잎은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무친다.
③ 금방 지은 밥에 참기름과 깨소금, 소금을 넣어 버무린다.
④ 양념한 밥을 알맞은 크기로 뭉쳐 취잎으로 싼다.



▷ 버섯덮밥

재료 :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피망, 은행, 간장, 참기름, 녹말가루, 소금

①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곱게 채 썬다. ② 팽이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찢어 놓고 양송이와 피망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③ 양송이에 소금 간을 해 참기름에 볶다가 피망도 넣고 같이 볶는다. ④ 채 썬 표고버섯을 참기름에 볶는다. ⑤ 다시마 물을 끓이다가 전분을 약간만 개어 넣고 집간장으로 색을 내고 소금으로 간 한다. ⑥ 재료를 모두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는다.

▷ 미역주먹밥

재료 : 마른미역, 공기밥, 참기름, 참깨, 죽염, 표고버섯가루

① 마른 미역을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아서 수분을 날려준다.
② 볶은 미역을 곱게 칼등으로 잘라준다.
③ 밥에 참기름, 참깨, 죽염, 표고버섯가루로 양념한다.
④ 양념한 밥에 다져 놓은 미역을 넣어 한 입 크기의 주먹밥으로 만든다.

▷ 두부 김밥

재료 : 쌀, 다시마, 김, 두부, 우엉, 당근, 오이, 시금치, 단무지, 조림장(진간장, 물엿), 식용유, 참기름, 소금

① 두부는 굵고 길게 썰어 소금을 뿌려 물기가 빠지면 노릇노릇하게 두 번 튀겨낸다.
② 채썬 우엉은 들기름을 두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조림장의 반을 넣고 조린다. 우엉은 건져내고 나머지 조림장을 넣은 후 끓으면 튀긴 두부를 넣어 조린다.
③ 당근, 오이는 가늘게 채 썬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센불에서 당근과 오이를 각각 볶다가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한다.
④ 시금치는 다듬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소금, 참기름을 넣어 무친다. 단무지도 가늘게 썬다.
⑤ 쌀에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밥을 지어 소금, 참기름, 통깨로 간한다.
⑥ 김 위에 밥을 반쯤 얇게 펴고 그 위에 두부와 갖은 재료를 놓고 김밥을 만다.



▷ 유부 채소밥

재료: 유부, 쌀, 다시마, 표고버섯, 당근, 오이, 우엉, 흑임자, 소금, 들기름, 진간장, 조림장(진간장, 물엿)

① 유부는 반으로 갈라 속을 벌려 주머니를 만든 다음 끓는 물에 데쳐 헹군다. 냄비에 진간장과 물엿을 넣고 끓이다가 유부를 넣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린다.
② 표고버섯, 당근, 오이는 각각 다져 소금간해 볶아 식힌다. 우엉은 곱게 다져 들기름에 충분히 볶다가 진간장, 물엿을 넣어 조린다.
③ 밥에 볶은 채소와 흑임자를 넣고 소금으로 간한 후 밥을 쥐어 유부 속에 넣고 모양을 만든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채식자장밥

재료 : 춘장, 감자, 호박, 당근, 우엉, 연근, 표고버섯, 전분물, 올리브유, 밥

① 버섯과 채소를 손질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는다. ② 팬에 올리브유를 반 국자 넣고 끓으면 춘장을 볶는다. ③ 센 불에 볶은 춘장에 채소를 넣고 볶는다. ④ 전분물을 조금 넣고 끓인다. ⑤ 밥과 자장소스를 따로 담아가서 먹기 전에 소스를 얹어 먹는다.



34. 다도(茶道)의 성립

일본 무사(武士)사회가 도래하자 중국의 문물을 배운 유학승들은 막부와 손을 잡고 수묵화와 조원(造園) 건축 외에 예술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닌 문화와 기술에 밝은 지식인이며 관료였다.

선종 사원에서는 광대한 자연을 좁은 공간에 압축하는 상징적인 수법으로 새로운 양식의 정원을 만들었다. 무사의 방에 꽃꽂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무사사회에서 선종은 사원을 중심으로 무사들을 결집하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는 풍조와 다실에도 영향을 주었다.

남북조 시대 무렵의 다회(茶會)는 다구(茶具)와 도기를 선호했으며 가이세키 요리도 간소화 한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궁중 다회에서 후견인으로 명성을 얻어 최고의 다인(茶人)이 된다. 하지만 그는 도요토미로부터 할복을 명령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3년이 지난 후에 손자 센소탄이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어 일본의 다도는 오모테 센케와 우라 센케, 무샤노코지 센케로 나누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도쿠가와 막부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을 규정하고 다인(茶人)이라는 직책을 따로 두었다. 쇼군가문의 다도 스승은 다인들 중에 신분이 가장 높았다. 신분이 낮은 다인들은 주로 젊은 승려들로 막부에서 잡다한 일을 하였다. 다이묘들도 다인들을 초빙하여 배우는 것이 유행이었다. 나중에는 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다인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머리를 깎아 승려로 불리었으나 정식 승려는 아니었다. 이들 중에 다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어 봉록을 지급하였다.

다케노 조오 화려함 배격한 와비 차 정신 창시
불교 쇠퇴하며 차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누야마시의 조안 다실.

이처럼 본래 취미와 기호의 영역에 속하던 다인의 신분이 직위로 제도화되자 이들은 자연히 계급의식이 생겨 지위를 튼튼히 하기위해 특정 유파의 사가(師家) 혹은 고도(高徒)등의 자격을 따야 했다. 무사와 다이묘와 귀족들 사이에 다회가 성행하자 상인들까지 틈만 나면 다회를 열어 손님을 초대했다. 하지만 에도중기에 이르러 유학이 국학(國學)으로 크게 자리를 잡자 불교도 점점 쇠퇴하여 다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되자 다인들은 관직에서 물러나 상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도를 교육하여 유파를 만들기 시작한다. 조용하고 작은 다실에서 차를 마시고 즐기는 모임이 이루어지고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10년을 젊게 사는법! 전통침술 비법전수!
국내 최고의 침술비법을 3개월 안에 마스터!! 당신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좌명 : 평생건강요법 기초전문가 과정 (3개월)
내 용 : 생활건강 침(전통침술)
경락 및 경혈
피부미용 침
다이어트 침
카이로프라틱(교정)
개 강 : 2007. 5. 1 (화)요일
※의료개방에 앞서 미래를 준비 하세요.
본 강좌에 앞서 무료 특별강의를 실시합니다.
일 정 : 2007. 4. 27 (금)요일 오후 2 시
장 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정문 옆 영화빌딩 3층
문 의 : 010-9263-7030
전통침구복지학회
코리아헬스케어아카데미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영화빌딩303호 (숙대 정문 옆 건물)



황어 올라오면 십리벗꽃 꽃망울이 '톡'


칠불사 영지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7) 지리산 쌍계사

지리산은 해발 1915미터로 남한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큰 산'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경남과 전라남북 3개도에 걸쳐있는 주능선은 무려 45킬로미터, 백리가 넘는다. 노고단에서 정상인 천왕봉에 이르는 주능선 구간에 1500미터급 봉우리만도 10여 개나 솟아 있다. 그 봉우리 사이에서 발원한 골짜기들이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의 유수한 강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섬진강의 한 지류인 화개천은 지리산의 아고산대 주능선이 만드는 남사면의 여러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반 백리를 흘러 섬진강에 합류된다. 화개천은 일찍이 '지리산 12동천'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혀온 곳으로, 신라고찰 쌍계사가 그 중류에 자리하고 있다.

쌍계사가 화개천이 내려다보이는 삼신봉 자락에 터를 잡은 것은 신라 성덕왕 때인 723년이다. 의상대사의 제자인 삼법(三法)대사가 옥천사(玉泉寺)라는 이름으로 초창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절이 제대로 면모를 갖춘 것은 신라 말 문성왕 때 진감선사 시절이다.

지리산의 봄은 이 화개골에서 시작한다. 해마다 청명을 전후해 화개에서 쌍계사까지 십리벚꽃이 숨넘어가게 핀다. 이곳에 왕벚꽃을 처음 심은 것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30년대 초. 시커먼 등걸엔 저마다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었지만, 백옥 같은 꽃다발을 가지마다 내걸었다.

화개천에 봄물이 내리면 황어가 춘정을 풀기 위해 바다로부터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화개에 이른다. 벚꽃을 피우는 것은 봄바람이 아니다. 황어가 올라와야 비로소 십리벚꽃이 꽃망울을 연다.

황어는 바다에서 살 때는 황백색을 띄지만,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오면 붉은 혼인색을 띤다. 그 색깔이 마치 스님들의 가사 색깔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옛 글에서는 '가사어(袈裟魚)'라고 했다. 황어는 일찍이 보릿고개가 힘겨웠던 이곳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은혜로운 고기였다.

2003년에 방류한 참게들도 이 화개천의 식솔이다. 참게는 게 가운데는 유일한 회귀성 게로 알려져 있다. 십리벚꽃이 필 즈음이면 왕거미만큼 자란 치게가 바닷물이 드나드는 하동포구에서 섬진강으로 돌아온다. 그러다가 서리가 내릴 즈음이면 하구로 내려간다.

벚꽃그늘을 밟고 쌍계사로 달리다보면 좌우 산기슭에 차밭이 다락논처럼 자리하고 있다. 차밭은 기름진 문전옥답에도 있고, 개간한 비탈밭에도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며 흩어져 있다. 더러는 저들끼리 야생으로 무리를 이루며 자란 곳도 있다.

화개의 차는 초의선사도 <동다송>에서 으뜸으로 쳤던 명차이다. 이곳 사람들은 벚꽃이 지고 나면 곧바로 찻잎을 따기 시작한다. 특히 곡우 이전에 채취한 '우전차(雨前茶)'를 으뜸으로 친다.

화개천에 걸쳐진 다리를 건너면 쌍계석문이다. 쌍계석문을 지나면 차나무 시배지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 때인 828년에 대렴(大廉)이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처음 심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쌍계사 가는 좌우 산기슭 차밭 이국적 정취 물씬
폐기와 · 황토로 투박하게 쌓은 담장 눈 맛 좋아
활엽수 많아 새들의 도솔천…방사한 곰도 발견

차 시배지 주변의 대나무숲은 되새의 월동지. 되새는 집단으로 모여서 잠을 자는 습성이 있어서 해질 무렵이면 각기 흩어졌던 수천 마리의 되새들이 다시 화개골 대나무 숲으로 모여든다. 되새는 참새만한 크기로 암갈색 무늬도 참새와 비슷하다.

숲길 가장자리와 경내 양지 바른 곳에 금창초, 현호색, 양지꽃, 광대나물, 개불알풀, 개별꽃, 마위꽃, 애기똥풀, 냉이꽃, 봄맞이꽃, 제비꽃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금창초는 풀 전체에 곱슬곱슬한 털이 돋아나 있고, 줄기는 곧게 서지 않고 땅에 기듯이 뻗는다. 봄에 푸른색이 감도는 자주색 꽃을 피운다.

팔영루는 중국으로부터 불교음악을 배워온 진감선사가 귀국 후 우리 정서에 맞는 범패(梵唄)를 만들고 후학을 가르친 곳이다. 범패를 '어산(魚山)'이라고 한 것은 진감선사가 섬진강에 뛰노는 물고기들을 보고 팔음률로 작곡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는 화강암으로 된 귀부와 이수, 점판암으로 된 비신으로 이뤄졌다.

첨성각 담장은 눈 맛이 좋다. 쓸모없는 폐기와와 황토를 재료로 하여 투박하고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담장에 마삭줄의 한 종류인 백화등이 강건한 생명력을 과시하며 달라붙어 있다. 백화등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만 분포하는 상록덩굴식물이다.

쌍계사의 가람 영역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영역과 작은 계류 건너에 남향한 금당 영역이 그것이다. 금당 영역이 쌍계사의 전신인 옥천사가 처음 자리했던 옛터라고 한다.

영모전 앞에 2개의 샘이 있는데, 이름이 옥천이다. 쌍계사의 전신인 옥천사라는 절 이름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오른쪽 샘은 수온이 찬 양수, 왼쪽 샘은 수온이 덜 찬 음수이다.

쌍계사 경내는 여러 종류의 동백과 겹벚꽃을 비롯하여 명자꽃, 불두화, 살구나무, 앵두나무, 치자나무, 배롱나무, 삼지닥나무, 별목련등 꽃이 아름다운 나무로 조경되어 있다.


쌍계사 첨성각 담장의 백화등.

금당 계류를 건너 방장실 주변에 있는 삼지닥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사람 키 높이로 자라는 관목이다. 가지가 셋으로 갈라지는데, 봄이면 그 끝에 잎보다 노란 꽃이 핀다.

방장실 뒷켠에 있는 별목련 역시 중국 원산으로, 봄이면 작은 가지 끝에 흰색 꽃이 핀다. 일반 목련꽃은 6~9개의 꽃잎인데 비해 별목련은 꽃잎이 좀 작은 대신 15개 안팎의 꽃잎이다.

벚꽃과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곤충들도 서서히 날갯짓을 하며 나타난다. 뿔나비, 청띠신선나비, 네발나비 등은 성충으로 겨울을 난 것들이며, 애호랑나비와 멧팔랑나비 등은 겨울에 번데기로 있다가 봄에 일찍 우화한 나비들이다.

쌍계사 주변 숲은 활엽수가 많은 탓으로 새들의 도솔천이 되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은 대웅전 앞에는 직박구리가 둥지를 틀어놓고 연상 들락거리고 있다. 개체수로는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산솔새, 동고비, 직박구리, 어치,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이 많다.

들머리인 쌍계석문을 지나 쌍계사를 거쳐 국사암에 이르는 구간의 표고는 500미터 이하이다. 이 구간에는 우리나라 기본 수종인 소나무와 온대남부활엽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인 참나무류로는 졸참나무, 갈졸참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있다. 온대남부수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느릅나무과로는 팽나무, 검팽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등이 있고,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굴피나무, 다릅나무, 털꿩나무,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 사람주나무 등이 모두 온대남부수종이다.

국사암 일주문 앞에 진감선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 자랐다는 느릅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다. 가지가 사방 네 갈래로 뻗은 거목으로, 일명 사천왕수(四天王樹)라고도 불린다.

쌍계사에서 삼신봉에 이르는 구간에는 두더지, 너구리, 족제비, 담비, 오소리, 멧돼지, 노루,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삵 등의 포유류가 서식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당국에서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가끔 나타난다.

쌍계사에서 칠불사까지는 30리길이다. 신흥마을 못 미친 곳에서 큰 골이 둘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으로는 세석전으로 가는 대성골, 왼쪽으로는 칠불사로 가는 범왕골이 나누어진다. 모두가 화개천 상류지역으로, 수달도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가야 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득도했다는 칠불사는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탓으로 물이 귀하다. 그래서 2개의 연못을 다목적으로 조성해놓았다. 주차장 아래에 있는 둥근 영지(影池)는 허 왕후와 출가한 일곱 아들들의 애틋한 전설을 담고 있다. 숲속의 연못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곤충 · 양서류 · 조류 · 포유류 등이 모두 거기에다 목을 매고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대행스님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것을 다 놔라!

잠자면서도 놓치지 않으려면

문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해 나가다 보니 어떻게 하면 평상시에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잠자면서도 참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불현듯이 '아, 잠자면서도 내가 자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잔다고 생각하고 자면 그게 24시간 다 가동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른 깨달음인지요?

답 깨달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느꼈다 이거지, 깨달음이라는 언어는 아무 데나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자면서도 가동이 된다고 하는 건, 이 몸은 바로 내 마음의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끌고 다니는 차와 마찬가집니다. 차는 세워 놓고 주인은 나가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듯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꿈에서도 몸뚱이는 재워 놓고 자기는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든 차를 세워 놓고 다니든 여러분이 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몸을 끌고 왔든 몸을 세워 놓았든 당신 마음이 다니는 거지, 육체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따라다닐 뿐입니다. 따라다니다가 마음이 쉬면 몸도 쉬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자는 시간이다' 하고 자니까 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지 않아요. 자기 몸은 잔다 할지라도 자기, 즉 말하자면 유전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혼백은 자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에도 잔다 안 잔다 할 게 없어요. 쉬면,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입니다, 활용. 즉 말하자면 마음을 냈다 하면 법, 능력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나라에서는 불이 항상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밝았다가 컴컴했다 이러질 않고, 캄캄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요. 전깃불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켜라 꺼라 이런 언어가 없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불은 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언어를 모릅니다. '불을 켰으면 좋겠다' 해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이 나의 영원한 자기, 근본적인 자기 실(實)은 참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근본은 켜졌다 꺼졌다 이러는 바도 없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일 뿐이고 기름이면 기름일 뿐이에요. 갖다 쓰는 것은 운전수가 갖다 쓰게 되죠. 기름일 뿐이지,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쓸 뿐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능력은, '부처님의 능력은'이라고 하는 것은 온 누리의 우주간 법계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는 전부 공해서 공력이 바로 그렇게 무수하다는 얘깁니다. 쓰고 안 쓰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지 부처님의 능력이 없다 있다가 없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자기를 재워 놓고 돌아다니는 그 나의 그림자의 또 그 마음의 그림자, 이것도 그림자고 그것도 그림자인데 이게 그림자의 또 그림자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밤중에 다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또 만들어 가지고 낮에도 다니거든요. 이것도 자기가 형성시킨 거니까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진화돼서 창조를 시키는 것도 자기의 근본이 없으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유전공학을 하는 데도 유전자가 없으면 그것은 물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변화를 시킬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작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즐겁다 사랑한다 하고, 종교도 이 종교 저 종교 가지고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모두 불죠. 여러분 각자 내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 근본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기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여러분도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반복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참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그렇게 쉬지 않고, 자지 않을 때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이렇게 깬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똥 누는 것도 참선이요,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는 거라. 그런데 왜 참선이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것은 댁의 마음이 끊어졌다고 하니깐 끊어진 거지 아니, 살림살이가 그냥 끊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끊어졌습니까, 어디?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을 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날 탑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쌀 푸러 갔다 똥 누러 갔다, 그게 탑돌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돌다가 살다가 죽죠. 죽었는데 그것이 뭘로 나오든 또 돌아서 나오니, 인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돌다 보면 항상이지, 어디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이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이해만 하고 알기만 해서도,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그 자체를, 모든 것을, 일체 나쁘고 좋은 것을 다 자기 주인공에다, 공(空)에서 나온 거 공에다 놔라 하는 겁니다. 말겨 놓고 믿어라. 지켜봐라. 그러면 홀연히 '참'이라는 게 거기서 흘러서, 그 생명수의 맛이라는 것은 정말 옆의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차만별로 그 맛이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좋은 맛이 나는데 도대체 그 맛은 정말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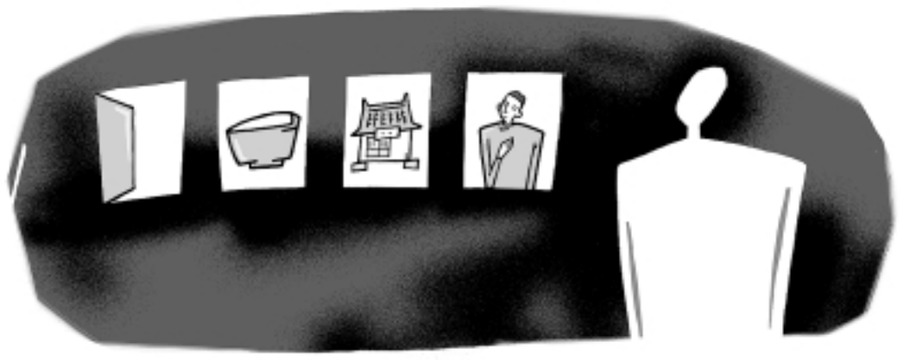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참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고 이렇게 도는 것도 다 참선이에요, 다! 그런데 "불경스럽게 변소에서 어떻게 부처님 생각을 합니까?" 이러거든요. 아, 자기가 변소에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 해가 똥구덩이는 안 비칩니까? 똥구덩이라고 해가 요렇게 돌아서 깨끗한 데로만 가서 해가 비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재가 들었다는데…

문 저의 남편이 삼재가 들어서 집을 사도 안 되고 땅을 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어느 용하다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치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말을 따로 하는 것보다도 생활에서 돌아가는 이런 구질구질한 말들을 타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생활에서 삼재가 들어서 집도 못 사고, 벌이할 운도 못 되고, 또 이사 갈 운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니, 부처님 법이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을 곧이듣는 당신도 그르지만 그렇게 일러 주는 그분도 그릅니다. 그런데 그분도 모르니까 그러겠지, 알면 그럴 리가 없죠. 당신도 또 모르니까 그걸 곧이듣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 알면 그거 들으러 갈 것도 없고 또 듣고 그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듣고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려면 그냥 가는 것이 법이요, 내가 집을 살 처지가 된다면 집을 그냥 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지, 그거를 부처님께서 진실하게 가르쳐 주셨지, 무슨 이사를 가면 나쁘다 좋다, 내년이 나쁘고 올해가 좋고 또, 삼재가 들었고, 삼재가 도대체 뭐 말라빠져 죽은 게 삼재입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삼재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삼재가 들면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한생각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삼재가 들어서 누구든지 죽는다고 그러던데 몸이 지금 아픕니다." 하고요.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했는데 아, 그거 보고 와서 삼재가 들었다고 그러는 해에 얼마 안 돼서부터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니 이걸 어떡했으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백 일을 기도를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려야만 삼재를 면한다고 했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자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니깐 그렇겠지." 하고 역시 그 보살님한테 그랬습니다. 삼재가 따로 있고 삼재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하기에 "보살님, 죽지 않으면 되고 병 앓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사를 가도 일요일날 식구가 다 모여서 아주 편안하게 먹을 거라도 지어 가지고 이러고 놀러 가는 것처럼 이사를 가라." 그랬어요. 아니, 왜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이 좋다고 해서 남자들도 하나도 없을 때 고생을 합니까? 내 마음의 부처가, 모든 부처가, 이 세상의 모든 일체 만생 만물이 다 내 한마음에 들어 있다면 구태여 어디 걸릴 게 있느냐. 그러니 내가 가는 날이 너무나 좋은 날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가면 좋겠다 하면 그 날이 좋은 날이다. 뭐든지 걸리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소리 듣고요, 사흘도 못 돼서 병이 나았어요. 병도 나았거니와 그 해에 얼마나 장사가 잘됐는지 말입니다, 삼재가 들어서 죽기는커녕 장사가 잘돼서 아주 고맙다고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자기를 바로 그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 보살님도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마음이 벗어나면 육신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허이구, 살기도 바

☞22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지사모집 안내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1)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강원 : 남부 – 원주,정선,영월,평창 일원, 북부 – 춘천,철원,양구,화천,홍천 일원
- 경기 : 남부 – 안산,화성,용인,안성 일원, 북부 – 포천,연천,동두천,파주 일원
- 대전 : 전지역
- 충남 : 서산,아산,당진,예산,청양,보령 일원
- 경남 : 마산,창원
- 전남북 : 광주지역/나주,목포/순천,여수/전주,익산 일원
- 제주도 전지역

2) 포교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추천서(스님/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30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이동격 차장
- 전화 : 02)2004-8214 / 팩스: 02)737-0696 / 이메일 jabi1522@empal.com

현대불교신문사

소주천小周天 2기 모집

무너지지 않는 금강삼매로 지혜의 빛을 밝히고,
몸과 마음을 닦아 생명의 대도로 들어가시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삼매가 없고, 삼매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삼매가 있는 사람은 진실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법구경法句經Dhammapada』

대승회 내공법內功法은 유불선의 장점을 융합한 것입니다. 대승경전大乘經典과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하며, 전진도全眞道 남종의 금단대도金丹大道의 하품단법을 아울러 닦아 갑니다. 무원無願 · 무상無常 · 공空의 삼삼매三三昧를 이루어 완전한 지혜(반야般若)를 밝히는 길입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본성本性을 깨달아, 생명의 기운을 그러모아, 대도大道로 들아가며, 정신을 기울지 않게 하여 해탈解脫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성명쌍수性命雙修를 내포합니다. 혜慧는 성性을 밝히는 것이고, 정定은 명命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승회의 수행은 먼저 정定과 명命을 닦고, 연후에 혜慧와 성性을 닦아 밝혀나갑니다. 처음에는 명공命功에 더 중점을 두고 수련하여 선천先天의 명을 다소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삼매의 기반을 이루고, 상승내공으로 갈수록 성공性功에 중점을 두어 깨달음을 열어갑니다.

공개강좌 무료 시공施功 있습니다

무료 공개 강좌	2007. 4. 25(수), 26(목) 오후 7:00~9:00 인사말, 소주천 과정 소개(1시간) / 시공(1시간)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개강	2007. 5월 中
과정	12개월(주 1회) / 도덕보장, 금강경, 유불선 경전

치유명상 무료 과정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간이簡易한 길이 있습니다.

쉽고 효과가 빠릅니다
(종교신앙과 관계 없습니다)

효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여 호르몬 분비와 기혈 순환이 조절됩니다. *면역기능과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만성질환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이 완화됩니다.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일시	2007. 3. 12~5. 31(수시 접수)
시간	오전반 10:00~11:00 월~금 오후반 15:00~16:00 월~토 저녁반 19:30~20:30 수, 목
과정	도인법 /소림오법, 오음곡 /108식 호흡 유불선 경전 강독

*진도와 무관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www.themahayana.org
대승회 지유와 나눔
대 승 회 는
유불선을 아울러 배우고 수행하는
치 유 와 나 눔 의 모 임 입 니 다

내공명상센터 Tel. 02-538-71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16 충암B/D 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6번 출구)

자고 깨고 반복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진리이며 참선!

☞21면에서 계속

쁘게 벌어다가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그 보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쁜 일도 맡기기만 하면 되는지

문 학생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역에 내려서 절에 오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걸 건너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항상 빨간 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그냥 도로를 가로질러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면서도 '이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맡기기만 해도 되는지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 여러분은 고등 동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 상식이나 인간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르고 저지른 것이 테이프에 녹음 돼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았다면 그것이 지금 녹음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현재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워라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 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바로 그 앞서 것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잘못 건너고 하는 그런 것도 자기가 저지르고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이왕 저지른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른 거라면 다시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저지른 거라면 바로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는다고, 그 마음에서 순수하게 깨달았으면 가면서 그 녹음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그 모든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안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르는 거는 모르니까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을 몰락,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 놓는 거를 다 놔라 이랬는데, 또 잘한 것도 감사하게 놔라 이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갖다가 놓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녹음테이프는 24시간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 초도 못 돼서 또 녹음이 되고, 일 초도 못 돼서 녹음이 또 되고, 그러니깐 앞서 녹음된 거는 자꾸 없어지면서, 또 녹음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되면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구! 그놈의 거' 하고 가슴에 담아두니 그렇게 해서 자기 가슴에 못이 되고 그것이 몇 해를 두고, 10년 20년이 가도록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세월이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깐 또 걸리는 거죠. 그러니 세월 가는 대로 그것도 놔라 이겁니다. 어차피 잘못된 거를 알면 벌써 잘해 나갈 것을 예약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거기다 놓고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고 또 그게 들어오고, 앞으로 잘해 나간다면 잘해 나가는 것이 녹음이 또 돼서, 앞서의 녹음이 죄 지워져 버리고 잘하는 것이 녹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녹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남이 잘못한 걸 보고 원망한다 하면 또 그놈의 잘된 녹음은 지워지고 원망하는 것이 또 녹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원망하고 이런 거,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 모조리 놔 버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 마음의 근본인 그 상식을 알아야 하고,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위로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아래로는 자기 아래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몸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자기 육신을 올바로 잘 끌고 다닐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거기다 놓기만 하면 됩니까 한다면 그건 억지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도둑질 열 번 하고도 신부한테 고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신부한테 고하면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잘못해 놓고 만날 고하네. 근데 그게 나는 모두 시원치 않았어요. 고하면 뭘 합니까? 찌꺼기는 연방 남아 있는 거를.

그렇게 남한테 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나한테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벌써 나한테서 잘못된 거니까, 잘못되게 한 놈도 나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겠다 하는 거를 다짐하면서 또 거기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이건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고해성사지, 내가 잘못한 걸 타인에게 고한다고 해서 그게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건데 어디다가 고해를 합니까? 여기서 나온 거 여기다가 반성을 하고 여기다가 놔야지. 그리고 고해하기 이전에 잘못하지 않으면 고해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잘들 생각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무간지옥이란?

문 사람의 몸을 받아서 살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한 차원 넘어서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차원의 세계인 오무간지옥이라는 것은 따로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답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고만이다' 이럽니다. '에이, 죽어나 버렸으면 고만이지, 이거 정말 살기가 고역스럽고 죽겠구나.' 이럽니다. 그러나 죽어도 말입니다, 그냥 몸뚱이만 없어졌지 아주 죽지를 않기 때문에 죽어도 허탕이에요. 그 어리석게 '죽어야 한다.'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을 생각이 있으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일어난 것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삼세심은 어떻게 해서 삼세심이 되느냐. 왜 삼세심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작년 콩씨를 올해 심었는데 올해 심은 콩씨가 또 많이 열려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콩씨 하나가 되남아서 내년 봄에 또 심습니다. 그러니 어저께 오늘도 오늘이요, 오늘의 오늘도 오늘이요, 내일의 오늘도 오늘이니까 이것이 삼세가 연결된 삼심이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삼세심이 한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지속되고요.

그런데 삼세심이 공했다, 이 공한 자체의 나 주체의식 그 근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천세계로 가고 이것은 중천세계로 가고 이건 상천세계로 간다.' 이것은 주체의 의식 그 자체의 근본에 의해서 세 갈래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가는 그 원리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천세계를 비유해서 봅시다. 딴 데서 보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에 보세요! '오간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종합된 인간의 탈을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탕지옥, 그 펄펄 끓는, 즉 말하자면 '끓는 지옥'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보느냐? 우리가 소를 잡되 도끼로 잡거나 몽둥이로 잡거나, 하여튼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구워 먹든 볶아 먹든 끓여 먹든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의 의식 자체는 떠나질 못합니다, 자기 육에서. 사람도 만약에 그 육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지경이죠. 그 육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의해서 떠나질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 안의 모든 내 생명체들이, 5억이라는 생명체들이 한데 붙어서 있다가 그게 여기에 주둔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둔돼 있으면 이 고기를 끓이면 끓이는 대로 이게 살생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맛을 보는 것이 한 번의 맛이 아니라 거기에서 착을 떼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내 윤회에 돌고 돌며 뜨거운 꼴을, 화탕지옥 꼴을 수만 수억 번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 참 자세히 말하자면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거든지 미생물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인간이 먹는 짐승들이 몇 종류입니까? 그러면 종류마다 그것이 한 번 맞아서 죽었으면 그뿐으로 그게 떠났으면 괜찮습니다마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 또 아픔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몇몇 번씩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는다는 소리도 나왔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열 마디씩 아시듯이 짐승의 종류가 수많은데 인간들이 다 그것을 끓이고 굽고 볶고 때리고 자르고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오간지옥이다 이 소립니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 가운데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종교가 다른데요

문 저는 절에 다니고 있는데 저의 며느리는 천주교엘 나가요. 그래서 며느리는 마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고 있고 전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면 이게 영적인 면에서 어떠한 충돌이 있어서 혹여나 가정불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답 나 같으면 말입니다, 며느리가 천주교를 믿든지 내가 불교를 믿든지, 그 마음으로 듣기 좋게 "야, 우리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한군데로 나가자!" 이렇게 위에서 존엄성 있게 웃으면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나쁘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마디 툉겨 놓고 마음으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겠습니다.

맡겨 놓으시고, 본인이 하는 것도 경을 봐서 소상히 이걸 따지지 마시고, 경을 보되 그것을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함이 없이, 책이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보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나가는 생활도 당신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으로는 항상 진짜 당신한테, 공한 당신한테 공한 이치를 다 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런다면 그 며느리도 한 번만 데리고 와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아주 참신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걸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걸려서 걸리는 거지 진리는 걸림이 없는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독송을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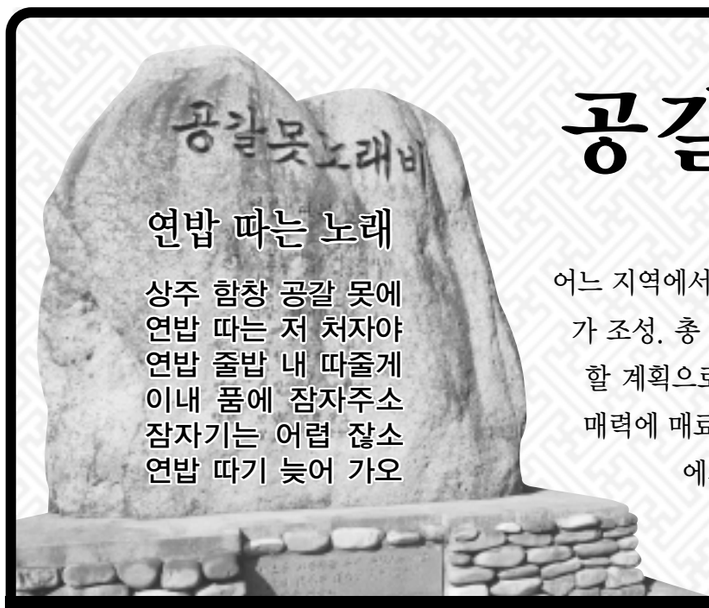
문 주위의 스님들께서 불경을 독송을 하면 좋다고 해서 제가 『금강경』을 아침저녁으로 몇 년째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뜻도 모르고 독송을 해도 복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얘기 또 해야 되겠군요. 옛날에 어느 도량에서 학인들이 결제가 되면 한 철에 모여서 참선을 하든가 경을 읽든가 이러다가 해제가 되면 나가서 또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제가 돼서 다들 들어왔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들어왔느냐?" 하니까 전부 무슨 경을 읽었다 무슨 경을 읽었다 하는데 한 분만 "저는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있었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똥 싸고 밥 먹고 잠잤다고 하는 말에 "얘 이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고 똥만 싸고 그렇게 했으니 너는 부목이나 해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 부목을 하면서 나무를 패서 그 스님 방에 불을 때느라고 그 앞엘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벌이 어쩌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건 입산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가서 유리가 반사가 되는 거를 보고 그것이 문인 줄 알고 자꾸 입으로 거기를 쪼니까 고만 입이 뭉그러져 그만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몸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쪼다가 몸이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 즉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몸이 떨어지니깐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니깐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몸으로, 사량으로 책을 보고 이론으로다가 알고 그런다면 이 몸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내면세계의 참나를,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바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량적인 마음으로 물질을 보고 그것을 글자 풀이를 하고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만 하는 것은 진짜 금강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을 누가 읽나?'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읽고 있을까?' 하고요.



공갈 못 백련지 조성




어느 지역에서든 2~3시간이면 삼백의 고장 상주에 도착할 수 있는 이곳에 백련지가 조성. 총 10ha(3만평)규모로 조성이 되며, 연차적으로 10만평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백련이 피어나면 연에 대한 모든 연음식 연잎차 등 백련의 매력에 매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호암사 아동시설 호암룸비니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한 백련(연잎차)와 백련분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향차의 체험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방법
- 서울에서 중부고속도이용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구미간 고속도로 이용하여 함창 점촌 IC에서 내리면 5분거리
- 경남 쪽에선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이용 북상주에서 내리면 공갈못 공검지에 도착 호암백련지를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4)541-7862~3

부생육기(浮生六記)의 연향 차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보여주는 "연꽃 이야기"가 있다.
지혜로운 아내의 연꽃처럼 고운 마음을 담은, 청나라 건륭(乾隆)때 심복(沈復)이란 사람의 자서전 부생육기(浮生六記)라는 책이 있다. 심복이 부생육기를 쓴 것은 그의 아내 운(芸)에 대한 사랑의 추억 때문이다.
심복은 아침마다 아내가 내주는 차의 향이, 독특하고 은은했다. 같은 차로 수십 번 자신이 우려보아도 그 향을 따를 수 없었다. 가만히 아내의 차 끓이는 방법을 눈여겨보았다. 연못에 피는 수련은 저녁에 꽃 심을 오므렸다가 아침이면 활짝 핀다. 아내는 저녁나절 꽃송이가 오므릴 때비단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 심에 놓았다. 차를 품은 수련은 밤새 별빛과 달빛 이슬을 맞으며 차의 향을 촉촉한 수련 향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침 일찍 꽃봉오리가 입을 벌릴 때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 차로 차를 달였다. 말단 관리였던 남편 수입으로 향기로운 고급차를끓일 수 없어 생각해낸 운(芸)의 지혜다. 이 같은 멋을 운 이가 떠난 후에 알게 된 심복은 회한의 눈물로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임어당 은 운은 중국문학에 있어 가장 사랑스런 여인이었으며 뛰어난 재인으로 손꼽는다고 했다.
부생육기에 나오는 수련은 연꽃을 말함입니다. 수련은 물에 떠서 꽃을 피우기에 꽃 봉우리가 닫히면 반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련 꽃 속에 차를 넣었다가는 더러운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연꽃차라 하여 연꽃 속에 녹차를 넣고 연꽃을 잘라 그 위에 덥힌 물을 부어 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음다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 글에도 있다시피 연 향이 너무 진 하면 그것이 연차 인지 녹차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의 근본은 녹차 입니다. 녹차에 약간의 연향을 가미하여 향긋함을 맛보기 위함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를 들며 다도를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생육기에 나오는 글은 연향차입니다. 연꽃 차는 연꽃만을 갖고 끓인 차를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 따서 덥힌 물을 부어 차를 마신들 그게 무슨 잘못 이겠습니까 만은 모름지기 차란 서양의 커피 마시는 듯해서 는 안 됩니다. 차엔 풍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 도라 붙이기도 합니다. 도란 예의범절을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면 족히 10여명이 차를 마시고도 남습니다. 왁자지껄 소란스럽게 마시는 차는 도가 아닙니다. 차엔 제다 인이 있고 음 다 인이 있습니다.
만드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음용하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여 음용 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철학이 없으면, 결코 다도인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본지 논설위원

'민족주의' 품격을 높여라

'민족' '민족주의'란 단어의 수난 시대다.

한국 서울의 종로에서 10년을 살면서 한국에 대한 잡지와 책을 내고 있다는 한 미국인 문명비평가가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사용 후기>에는 '한국에 천박한 민족주의가 넘친다'고 일갈한다.

'사용 후기'라니? 대한민국이 무슨 일용잡화나 전자제품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탈북자에겐 도도하면서 축구시합만 있으면 한민족 수호자나 된듯하고, 편파판정이라도 있으면 해외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독도문제만 나오면 반일시위를 하고….' 등등을 천박한 민족주의의 본보기로 내 놓았다.

독도문제가 나오면 위정자들에게 '그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 해결하라' 해야지 왜 손가락 자르고 일장기 불태우고 그러느냐며 한국인들에게 제법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린다.

여기서 그의 불쾌한 발언에 '흰 눈'만을 뜰 수 없는 것은 그가 오늘의 한국 민족주의 일면을 거울에 비추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제법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독일의 히틀러나 세르비아의 전 대통령 밀로셰비치 등이 '민족 감정'을 선동해 잠시나마 재미를 보았던 그런 민족주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민족'이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지고 지선의 것도 아니며 그 개념 자체가 근대에 들어 형성되었을 뿐이라는 역사학자들의 주장도 있었다. 세계화 시대에 무슨 민족? 이라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어느 작가의 '용감한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의 품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품격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를 진정 정의로운 사람이 내 걸었다면 '정의'의 품격은 분명 고귀해 질 수 있었을 것인데 불행히도 지난 군사정권 가운데 하나가 내 걸었던 구호였으므로 '정의'의 품격이 상당히 추락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민족'과 '민족주의'도 최근 몇 년 동안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구호와 선동에 시달리다 보니 그 품격이 이제 '천박함'으로 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누군가 우리에게 '한민족은 무엇이며 한민족적인 것은 또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의 내용을 '민족' 또는 '민족성'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용당하기 쉬운 '민족 감정'을 부추겨 권력 추구의 정치적 선동에 써 오고, 여기에 생각 없이 동조해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민족주의'가 천박해 질 수밖에….

그러니 단어의 품격, 즉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다행이랄까 요즘 한국적인 것, 5천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선택,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체화시켜 온 원형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뜻과 품위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믿는다.

풍류나 선도 무속 등 자생적인 것은 물론 밖으로 활짝 열린 창으로 받아들여 체화한 유불도 삼교, 여기에 근대에 서양 종교까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정신적으로 이처럼 평화롭게 열린 민족이 어디 그리 흔한가. 이른바 '한류'라는 것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이를 잘 발전시키면 '한국적인' 그 무엇들이 차츰 세계성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얻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세계화는 이렇게 남과 나를 섞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편협함이나 배타성 같은 부정적인 것을 찾을 수 없다. 하물며 남과 담을 쌓아 이득을 얻으려는 식의 선동이 끼어 들 자리도 없다.

천박해진 '민족주의'에 원래의 품격 찾아주는 일이 급하다.

불자의 눈

제2의 조승희 '새싹포교'로 막자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범인 조승희가 한국인 교포란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무엇보다 조승희가 한 방송사로 자신의 범행동기를 알리는 동영상 등을 보냈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연일 경악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탄과 놀라움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진흙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물을 정화하는 연꽃이 있듯이 우리는 이 처참한 세상에서 연꽃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종교인 특히 불교계에 엄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간관과 세계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예고한 '상징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이 올해 들어 유례없이 어린이 포교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계종의 경우 최근 어린이 청소년 시설을 수탁하여 최고의 운영을 다짐하고 있고 청소년 포교와 관련한 대안들도 다양하게 마련한다고 하니 든든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이 법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은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새싹포교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비해 현실적인 여건들이 뒤처져 있다. 인재불사, 전인교육, 인간방생 이런 말들은 결코 구호가 아니다. 당장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사라지는 중요한 당면과제들이란 점을 명심하자.

불자의 신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올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봉축 표어다. 오늘날의 불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처럼'이라는 한 마디일 것이다. 불자라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 봐야 한다. 살아가다가 화가 솟구칠 때마다 '이 경우 부처님도 화를 낼까?'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

불자의 삶은 항상 부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의 기준선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꿋꿋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거짓이나 가식, 죄 같은 것이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알 뿐 의식의 방향이 부처님과 벗어나 있으면 일거수일투족이 악업이 될 뿐이다. 선업의 삶은 바로 부처님을 향해 조준된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표어는 모든 불자의 생활신조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봉축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 모든 불사가 우리들이 부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원력의 표현이고 우리 스스로 부처님께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봉축기간이 되도록 모든 불자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길 바란다.

'종교자유' 칼럼

8. 교사의 종교편향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교육현장에서의 종교 강요 및 차별 행위는 교사의 개인적인 행위와 학교 차원 또는 제도적 관행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타종교인 학생들을 차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했다던 어느 불자의 얘기가 생각난다. 학부모로서 내심 당황했겠지만 그렇다고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선교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받아보는 학부모의 종교가 타종교일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려 깊은 교사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좋은 말씀을 실어 보내겠다는 소박한 뜻이라면, 굳이 성경 구절만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경, 전래속담, 고사성어, 기타 명언 · 명구 등에서도 얼마든지 한 구절씩 소개할 수 있지 않은가. 또 그래야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특정종교 경전 구절을 써 보낸다면 분명히 선교 의도를 드러낸 것이므로, 종교에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할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글자로만 전달되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가령 교사가 특정 종교 신자라고 잘 알려진 경우, 꼭 확인해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학생의 종교를 묻는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도를 짐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회에 안 나가니?" 하면서 마치 교회 다니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투로 묻는다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지속적으로 성경을 직접 읽어 주거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방학숙제로 성경학교를 다녀오라거나 일요일에 교회에 다녀와 독후감과 일기를 제출하면 스티커와 상을 주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인성지도를 넘어서서 분명히 특정종교의 노골적인 강요이므로 공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서울 S교회 유치원의 수업장면.(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교회 안 나가니?" 선생님의 질문 학생에겐 감당못할 '부담'

그런데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편협한 언행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옥 간다"고 한 말에 아이가 충격을 받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항의하였다. 학교장은 결국 그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켰다고 한다.

오죽하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학교 가는 것마저 싫어했을까. 툭 던진 선생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어린 학생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나 혼란을 생각이나 해보았을까.

나 그 가족의 종교가 타종교인 것을 알고서도 교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마귀의 종교를 믿다니…."라고 악의적인 말을 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몇 해 전 부산의 어느 스님이 들려준 그 절 신도의 얘기다. 신심 있는 불자였던 할머니를 따라 집 근처 절에 자주 다녔던 초등학생 손자가 어느 날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 영문을 몰라 속상해하던 부모는 담임선생님이 "불교는 나쁜 종교이고 불교 믿으면 지

어떤 학부모들은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 없어 전학하거나 아예 먼 곳으로 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 아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 보니 가슴이 답답해 온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종교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교사 양성과정에 인권, 특히 종교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현직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 인류 역사의 배경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종교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종교적 편파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교사나 공직자의 인권의식 결여와 그 폐해가 어떻게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인권단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연수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주로 외국인 · 여성 ·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 등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 그리고 두발 · 교복 자유화 등의 학생자주권, 체벌 · 폭력 등 신체 관련 문제들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는 데 그칠 뿐, 양심과 종교의 자유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다. 차제에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하에 종교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종교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교육현장의 사례들 중심으로 깊이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음양지기 저자
이종두 원장의 천기비법 대공개 강좌

일 자	과 목	교 육 내 용
1주차 이론1	1. 동양철학 2. 효의 원리 3. 풍수 4. 수맥 5. 지기학 6. 기와 혈 7. 운과 기 8. 양명기석	– 일리삼원론, 삼극론, 기와 효의 상관관계 – 효와 후손의 사주 운명과의 상관관계 – 부모생존시 효와 혈과 후손의 운명과의 상관관계 – 조상 유택이 후손 양택(집,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 풍수지리학 관산법의 이해 – 역학/사주와 기의 연관성 – 수맥 찾는 방법, 수맥을 100% 차단하는 방법 – 수맥과 지기와의 상관관계 – 양기, 음기 – 혈 – 건강(질병, 장수), 삼재우환, 재운/관운과 기 – 양명기석 및 지기가 인체/농작물/동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2주차 이론2	1. 양택론 2. 음택론	– 잠자리/주택재운/학업성적/사업장과 혈(양기) – 주택 지기(양기,음기)의 혈진단 및 명당 처방 방법 – 유택(매장, 납골)과 음기, 양기(혈) – 유택의 혈진단 및 명당 처방 방법
2주차 실 습	1. 양택실습	– 주택/사업장의 지기/수맥/혈 진단 및 실습 – 주택/사업장의 음터를 명당으로 처방하기 실습
3주차 실 습	2. 음택실습	– 유택(매장, 납골)의 지기/수맥/혈 진단 및 실습 – 유택의 음터를 명당으로 처방하기 실습
4주차 종 합	1. 인체건강진단방법 강의 및 실습 2. 종합 정리 및 질의응답, 교육이수증 수여 및 우수교육생 포상	

◆주 관 : 음양효혈풍수지리교육원(효도원)
◆일 시 : 2007년 4월 29일부터 4주간 매주 일요일 11시 ~ 18시 (4일 교육, 중식 제공)
◆강 사 : 음양지기의 저자, 한국음양효혈풍수지리회 회장 이종두 직접 강의
◆참 가 비 : 60만원(교재 2권, 엘로드, 양명기석 사은품 증정)
◆입금계좌 : 우체국 014167-01-018064 박서연(효도원)
◆접 수 : 전화접수, 입금순으로 선착순 50명 마감

음양효혈풍수지리교육원 http//www.jigi.org 02)579-2560

수제화로 제작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건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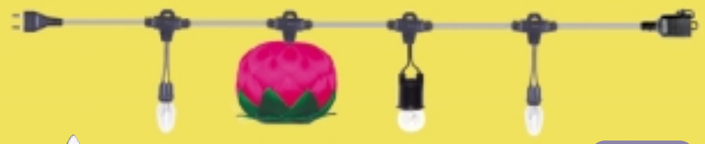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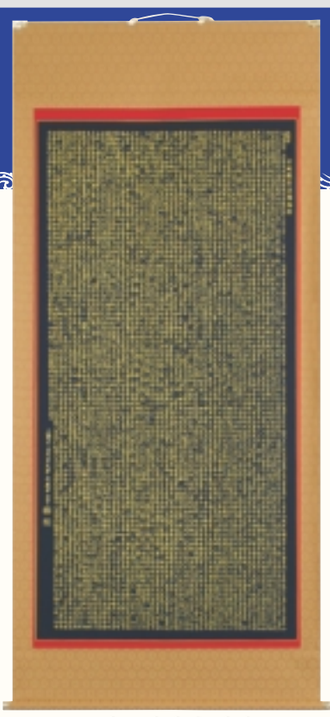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 강 경 족 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廷潭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七佛通揭(칠불통게)로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뱀,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이 富貴尊靈(부귀존령) 得福甚多(득복심다)하실 것입니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 × 가로 78.5㎝ (양면은 14K금봉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 만유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산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점씩 구입하십시오.(선착순 200개 한정판매 합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 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廷潭합장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국민은행 103001-04-001967(예금주:윤두영)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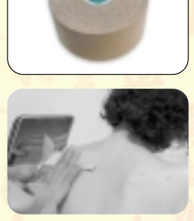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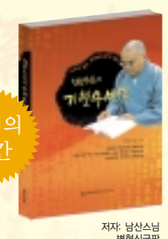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기혈수비법 강좌안내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남산스님 개인 친견가능)
장소 :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동 지하철 역사내 3번 출구 안
문의: 080-999-1080

희담석 전제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건강을 생각하는 희담석찜질팩



[이럴 때 사용해 보세요]
- 근육통, 어깨 결림, 오십견, 척추디스크 및 교통사고 후유증등으로 찜질을 원하시는 분
- 야간근무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등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통상 렌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끓인 후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지만 희담석의 모든 찜질팩은 찜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 희담석 허리 찜질팩 값 ~~44,000원~~ → 35,200원
▮ 희담석 어깨 찜질팩 값 ~~66,000원~~ → 52,800원
▮ 희담석 찜질팩 값 ~~38,000원~~ → 30,400원

사은품 : 찜질팩 구입시 **눈찜질팩** 증정

보료 특가판매 실시중

자원넷 011-9230-2335

홈페이지 www.jawonet.com

차용품전문회사 홍 다 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宣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